

성경공부

“우리를 정의와 평화로 이끄소서”

생명의 하나님, 우리를 정의와 평화로 이끄소서.

인류와 피조물 전체의 생명이 위기에 처한 오늘날 세계에서 생명의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일이 시급하다.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각자의 매우 다른 상황에서 생명의 하나님의 부르심에 어떻게 응답했는가를 공부하는 일이 중요하다. 그리고 하나님이 오늘날의 사람들을 어디에서, 그리고 어떻게 인도하여 모두를 위해 생명의 풍성함을 확증하고 도우시는지를 분별하는 것이 필수적인 일이다.

이 책은 생명과 정의와 평화에 관한 핵심 성경 구절들에 집중하여 전 세계의 성서 학자들과 신학자들이 공동으로 작성하였으며, 이 책에 나오는 6개의 성경공부는 기도하면서 성경 본문에 주목하고, 우리 자신의 현대적 상황을 읽어내고, 생명의 하나님이 우리 자신과, 공동체들과, 그리고 우리의 세계 속에서 활동하시는 다양한 방식을 펼쳐볼 수 있도록 우리를 초청한다.

편집자 **금주섭 박사**는 세계교회협의회 세계선교와 전도위원회에서 국장으로 섬기고 있다.



세계교회협의회(WCC) 제10차 총회
2013. 10. 30(수) - 11. 8(금)
부산 벅스코(Bexco)

ISBN 978-2-8254-1633-4



9 782825 416334 >

생명의 하나님 WCC 제10차 총회 대한민국 부산, 2013

WCC 제10차 총회

대한민국 부산, 2013

생명의 하나님



World Council
of Churches

생명의 하나님

성경공부: “우리를 정의와 평화로 이끄소서”

생명의 하나님

성경공부: “우리를 정의와 평화로 이끄소서”



**World Council
of Churches**
Publications

생명의 하나님

성경공부: “우리를 정의와 평화로 이끄소서”

WCC 제10차 총회 대한민국 부산, 2013

Copyright © 2013 World Council of Churches. All rights reserved.

이 저작물의 저작권은 세계교회협의회(WCC)에 있습니다. 국제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받는 저작물이므로 무단 전재와 복사를 금합니다. 이 저작물의 사용을 원할 경우 사전에 서면으로 요청해야 합니다. publications@wcc-coe.org

WCC Publications는 WCC의 홍보출판국입니다.

WCC는 1948년 조직되어 정의롭고 평화로운 세상을 위해 믿음, 증언, 봉사 안에서 그리스도인의 일치를 증진시키고 있습니다. 세계적 교회연합기구인 WCC는 110개국에서 5억 6,000만 명 이상의 신자들을 대표하는 349개의 개신교 교단들과 정교회, 성공회 등을 통합합니다. 또한 로마가톨릭교회와도 협력하여 사역하고 있습니다.

표지 디자인: Judith Rempel Smucker

ISBN: 978-2-8254-1633-4

World Council of Churches

150 route de Ferney, P.O. Box 2100

1211 Geneva 2, Switzerland

www.oikoumene.org

차례

서론		7
성경공부 1		
오직 이것을 행하라—생명을 보호하라!	창세기 2:4하-17	17
지오니 하비(Jione Havea)		
성경공부 2		
정의가 물처럼 흐르게 하라	아모스 5:14-24	27
케이티 캐넌(Katie G. Cannon)		
성경공부 3		
살아 있는 물	사도행전 8:26-40	35
엘레니 카셀로리-해치바실리아디(Eleni Kasselouri-Hatzivassiliadi)		
성경공부 4		
뜻으로 본 교회의 탄생: 성령 충만한 출발	사도행전 2:1-13	45
배현주		
성경공부 5		
혼돈스러운 세상에서 정의를 위한 투쟁	열왕기상 21:1-22	55
사로지니 나다르(Sarojini Nadar)		
성경공부 6		
평안히 가시오	요한복음 14:27-31	63
네스토 O. 미게스(Néstor O. Míguez)		

서론

“**생**명의 하나님, 우리를 정의와 평화로 이끄소서”는 세계교회협의회 제10차 총회(대한민국 부산, 2013년 10월 30일-11월 8일)의 주제이다. 이 세계에 사는 사람들과 모든 창조세계 전체의 생명이 위협에 직면하고 있는 지금, 우리가 생명의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함은 긴급한 요청이다. 하나님이 만물에게 풍성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자기 백성을 어디로,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분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를 위해 성경의 인물들이 다양한 배경 속에서 각각 하나님의 인도와 부르심에 어떻게 응답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다. 아울러, 오늘날 우리 자신의 응답을 반성하고 그것을 성경의 응답과 비교해보는 것도 중요하다.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사역을 어디에서 발견하는가? 또한 일치를 향한 하나님의 사역에 어떻게 동참할 수 있는가? 하나님은 정의와 평화를 통한 생명을 어떻게 품으시는가? 성경공부를 통해서 총회 참가자들은 총회 주제를 탐구하고, 서로 배우고 말씀 가운데서 성장하며, 생명의 하나님의 부름에 헌신하도록 격려받는다. 또한 매일 성경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모여서 각자의 상황과 경험을 나누고 성찰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참가자들은 자신과 에큐메니칼 운동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함께 살펴볼 수 있다.

이 책은 총회 참가자뿐만 아니라 각 나라에서 총회를 위해 기도하며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성경적인 관점에서 총회 주제를 묵상하도록 돕는다. 이 책은 총회준비위원회의 지도에 따라 WCC 전문가 그룹이 준비했

다. 총 6장으로 구성된 이 책은 각 장에서 총회의 일일 주제를 묵상하기 위해 선택된 성경 말씀, 그에 대한 주해, 성경 본문과 관련된 고대와 현대 상황에 대한 해석, 성찰과 토론을 위한 질문을 다룬다. 이 모든 내용은 성경의 통찰을 각자의 삶과 교회의 증언에 적용하기 위한 것이다. 각 장의 끝에 제시되는 기도문은 영적인 성찰을 통해 성경 본문이 전하는 하나님의 메시지에 귀 기울일 수 있도록 도와준다.

6개 대륙의 다양한 배경과 전통을 가진 남녀로 구성된 6명의 집필진이 참가자들의 성경공부를 돕기 위해 자료를 제공한다. 그들은 개인적인 관점과 교회의 경험에 기초하여 각 개인의 이름으로 이 내용을 집필했다. 에큐메니칼 운동의 핵심적인 가치이자 미덕인 일치를 촉진하기 위해 풍부한 다양성과 창의적인 도전을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려고 한다.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의 다양한 경험에서 나오는 목소리를 함께 경청함으로써 “우리를 정의와 평화의 길로 인도하시고” 온 인류와 창조세계의 충만함을 주시는 “생명의 하나님”을 따를 수 있도록 기도드리자.

이 책을 이용하는 방법

개인적인 묵상을 위해 이 성경공부 자료를 활용할 수도 있지만, 지역 교회의 회중, 친구, 가족이 참여하는 토론 그룹을 만들어—총회 전이라도—함께 이용할 것을 적극 권장한다. 그렇게 하면 총회에 참석하는 사람들이 기도로 함께 총회를 준비할 수 있으며, 부산에 오기 전에 친구, 동료들의 풍성한 통찰을 얻고 하나님의 지혜의 성령으로 충만해질 수 있을 것이다. 부산에 오지 못하고 각 나라에서 총회와 함께하는 사람들은 이 성경공부를 통해 총회 기간 동안 에큐메니칼적 영적 순례에 동참할 수 있을 것이다.

그룹을 지어 성경공부를 하려면 신중하게 준비해야 한다. 적어도 한

사람은 토론을 진행하기 위해 성경공부 자료를 철저히 이해해야 한다. 토론 진행자는 모든 사람이 성경 본문과 해설 자료를 읽었다고 가정한다. 편안한 분위기를 조성하여 원으로 둘러앉는 것이 대화를 나누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다. 성경공부 순서는 먼저 각자의 배경에서 시작하여 대화의 폭을 넓혀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람들이 자신의 경험을 말할 수 있도록 시간을 배려해야 하지만, 일부 사람에게는 이 과정이 부담스러울 수도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경청은 말하는 것 못지않게 중요하며 폭언은 물리적 폭력만큼이나 파괴적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6개의 성경공부 자료의 끝에는 개인과 그룹이 함께 묵상과 토론을 할 수 있는 질문이 각각 제시되어 있다. 성경공부는 총회 주제인 “생명의 하나님, 우리를 정의와 평화로 이끄소서”를 이해하고 응답하는 데 어떤 도움을 주는가? 참가자들의 대답을 정리하고 그것을 활용하여 교회나 교구, 교단, 교회협의회가 WCC 총회에 동참하여 계속 함께할 수 있도록 독려한다.

마지막에는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다. 각 성경공부 자료에 제시된 기도문을 사용하고, 원하는 경우 각자가 작성한 기도문을 추가한다. 총회 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할 수 있도록 계속 기도드린다.

상황 중심 성경공부

여기에서 사용된 성경공부 방법론은 넓은 의미의 상황 중심 성경공부 방법론이다. 이 방법론은 공동체에 토대를 두고 서로의 경험과 생각을 나누는 성경공부 방법론으로서 특정 공동체 내의 주요 관심사를 적극적으로 주장하도록 장려한다. 이런 내용은 성경공부에 참여하는 주요 당사자의 목소리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가르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진행자는 두 가지 중요한 성경 해석 원리를 이용하여 토론 질문을 제기한다. 이

를테면, 주석학적인 방법, 곧 성경 연구에서 도출된 도구를 이용하는 문
학비평적 또는 역사비평적 질문, 그리고 해석학적인 방법, 곧 지역 사회의
독자들—진행자와 해당 지역 사회의 구성원들—의 감정, 경험, 자료를 이
용하여 공동체 의식에 기초한 질문을 제기한다. 상황 중심 성경공부를 통
해 성경 본문은 독자(지역 사회)의 상황과 대화할 수 있다. 따라서 상황
중심 성경공부의 주요 요소는 다음의 5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 1) 지역 사회—지역 사회의 요청을 수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해석과정에
서 제기된 질문들에는 성경공부 참가자들이 직접 대답한다.
 - 참가자들의 응답을 기록해야 한다. 이렇게 하는 것은 그들의 응답
내용에 주의를 기울인다는 것을 알려줌으로써 힘을 실어줄 수 있다.
 - 성경 본문에 대한 해석은 개인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의견이 반영되
어야 한다.
 - 이런 활동은 결과보다 과정이 더 중요하다.
- 2) 상황—참가자들의 사회적 위치
 - 지역 사회 현실을 진지하게 묵상하고 이것이 성경 본문을 읽고 해석
하는 렌즈가 된다.
- 3) 비판적 사고—진행자는 주석과 해석이라는 해석학적 도구를 이용하
고, 이를 통해 비판적 성찰을 위한 질문을 제시한다.
 - 역사적인 성경 본문은 사회역사적 재구성, 성(gender), 민족 분석,
윤리를 포함하는 특수한 해석학적인 도구를 사용해야 한다.
- 4) 인식 제고—지역 사회의 주요 이슈에 대해 인식을 제고해야 한다.
 - 그리스도인은 흔히 믿음의 해석학으로 성경을 읽는 경향이 있다. 이
것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해방의 도구이며 그것을 통
해 해결책을 발견해야 한다는 뜻이다. 상황 중심 성경공부의 한 가
지 목적은 성경을 해방의 도구일 뿐만 아니라 억압의 도구로 보는 것

이다. 예를 들어, 성경은 남아공의 인종차별주의를 정당화하기 위해 사용되었다. 지금도 일부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지배를 정당화하는 정치적 이데올로기를 설명하기 위해 성경을 사용한다.

5) 변화—인식이 바뀌면 변화가 일어난다.

성경 본문을 선택한 이유

이 자료에 실린 모든 성경 본문은 생명이 위협당하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정의와 평화가 널리 확장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아울러 이야기 형태가 성경 본문 중 가장 접근하기 쉽다는 점을 고려했다. 우리는 총회의 매일 주제와 이미지를 통해 일관성 있는 영적인 삶을 추구하고자 한다.

- 성경공부 1(총회 2일차)—성경 본문: 창세기 2:4하-17, 총회 주제에 초점을 맞추고 생명나무 이미지를 활용한다.
- 성경공부 2(총회 3일차)—성경 본문: 아모스 5:14-24, 아시아에 초점을 맞추고 복을 이미지로 활용한다.
- 성경공부 3(총회 6일차)—성경 본문: 사도행전 8:26-40, 선교에 초점을 맞추고 물을 이미지로 활용한다.
- 성경공부 4(총회 7일차)—성경 본문: 사도행전 2:1-13, 일치에 초점을 맞추고 불과 바람을 이미지로 활용한다.
- 성경공부 5(총회 8일차)—성경 본문: 열왕기상 21:1-22, 정의에 초점을 맞추고 음식을 이미지로 활용한다.
- 성경공부 6(총회 9일차)—성경 본문: 요한복음 14:27-31, 평화에 초점을 맞추고 꽃을 이미지로 활용한다.

성경공부 1

총회 2일차, 총회 주제, 이미지: 생명나무

성경 본문: 창세기 2:4하-17

생명의 하나님이 흙으로 인간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인간의 본질은 하나님과 창조세계와 연결되어 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의 동산을 돌보라는 소명을 주시고, 또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고 유혹하는 열매를 먹지 말라고 명령하셨다. 첫 번째 성경공부에서는 생명의 본질에 대해 묵상하고, 아울러 생명의 본질을 총회의 주제와 관련하여 축하하고, 유지하고, 긍정하는 방법에 대해 묵상한다. 이 본문은 상황에 따라 다양하게 읽을 수 있다.

성경공부 2

총회 3일차, 아시아, 이미지: 북

성경 본문: 아모스 5:14-24

아시아는 고난과 희망의 땅이다. 이 본문은 사람들의 고난과 정의를 향한 투쟁에 초점을 맞춘다. 이 본문은 하나님 통치에 대한 비전을 제공하며, 아울러 정의와 평화를 이룩함으로써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사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제시한다. 이 본문을 갖고 씨름할 때에 핵심은 고통, 눈물, 절망을 해방, 기쁨, 희망으로 전환하는 길을 성경 말씀과 우리 상황 가운데서 발견하는 데 있다.

성경공부 3

총회 6일차, 선교, 이미지: 물

성경 본문: 사도행전 8:26-40

이 본문은 성령의 사역을 생명의 물이라는 상징과 결부시킨다. 성령은 생명을 주시는 분이며, 또한 하나님의 백성의 생명을 유지하고, 그들에게 힘

을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도록 하신다. 우리는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사역을 어떻게, 어디에서 찾아볼 수 있는가?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의 선교에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는가?

성경공부 4

총회 7일차, 일차, 이미지: 불과 바람

성경 본문: 사도행전 2:1-13

이 본문은 흔히 선교의 관점에서 읽는다. 어떻게 하면 오순절 사건을 일치의 관점에서 이해하여 에큐메니칼 운동에 새로운 통찰, 역동성과 능력을 제시할 수 있을까? 오순절 사건과 정의와 평화의 관계, 그리고 다양성 속에서 일치를 이루시는 성령의 역할은 오늘날 변화하는 상황을 탐구할 수 있는 흥미로운 주제이다.

성경공부 5

총회 8일차, 정의, 이미지: 음식

성경 본문: 21:1-22

나뭇의 포도원 이야기는 우리 사회의 정의 개념에 도전을 준다. 이 이야기는 단호하게 생명을 옹호하는 하나님의 정의를 소개하며, 효율성과 생산성을 상징하는 아합 왕의 경제 논리를 초월하는 기준을 보여준다.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오늘날 세계 시장경제의 불의한 문제에 대처하고, 생명을 지키는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하는 방법을 찾을 수 있다.

성경공부 6

총회 9일차, 평화, 이미지: 꽃

성경 본문: 요한복음 14:27-31

최후의 만찬에서 예수께서는 “평화”를 말씀하셨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평

화에 대해 말씀하신 때는 배신과 죽음을 앞둔 밤이었다. 따라서 그는 인생의 평온한 시기에 평화를 말씀하신 것이 아니었다. 교회와 에큐메니칼 운동은 어느 곳에서 어떤 종류의 평화에 대해 말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평화는 일시적인 것이 아니며, 반드시 행복한 일과 관련될 필요는 없다. 평화는 평화를 갈망하는 사람들에게 생명의 문제이다. 총회 마지막 날에 건네는 “평안히 가시오”라는 인사는 새 하늘과 새 땅에서 누릴 풍성한 생명의 비전을 증언하기 위한 성경적·선교적 능력의 부여이자 명령이 될 것이다.

진행자를 위한 안내지침

1. 성경공부 그룹에서 성경 본문을 소리 내어 읽는다. 몇몇 자원자를 받아 본문을 나누어 읽게 한다.
2. 참가자들과 본문의 핵심 주제에 대해 의견을 나눈다.
3. 적절한 경우, 참가자들에게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핵심적인 특징이 무엇인가?”라고 질문한다.
4. 본문을 상황/맥락 중심으로 이해할 때 어떤 역사적 또는 사회적 요소가 포함되어 있는가?
5. 앞의 네 가지 질문은 성경 본문에 초점을 맞춘 것이다. 이제는 참가자들이 본문을 현재 상황에서 읽도록 요청한다. 먼저 본문과 관련된 그들의 상황에 대해 질문하고, 아울러 본문의 상황과 지금의 상황의 유사점과 차이점에 대해 물어본다.
6. 성경 본문이 현재 상황에 주는 의미에 대해 개인, 교회, 국가가 구체적으로 응답할 수 있는가?

총회 참가자와 다른 곳에 있는 사람들 모두 이 성경공부를 통해 각자

의 영적인 삶이 풍성해지고 하나님의 정의와 평화를 확장하기 위해 행동하기를 바란다. 마지막으로, 훌륭한 성경공부 자료를 제공해주신 집필진에게 깊이 감사드린다. 집필진은 같이 연구하고, 총회 성경공부 그룹은 함께 작업하고 계획하고 지도해주었다. 이 성경공부 그룹에서 수고하신 분들은 Theodore Gill, Tamara Grdzelidze, Carlos Ham, Lawrence Iwuamadi, Deenabandhu Manchala, Nyambura Njoroge이다. 이들에게 깊이 감사드린다.

성경공부 1

오직 이것을 행하라—생명을 보호하라!

창세기 2:4하-17

⁴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⁵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⁶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⁷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령이 되니라 ⁸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⁹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 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¹⁰강이 에덴에서 흘러 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¹¹첫째의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월라 온 땅을 돌렸으며 ¹²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¹³둘째 강의 이름은 기혼이라 구스 온 땅을 돌렸고 ¹⁴셋째 강의 이름은 히테겔이라 앗수르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¹⁵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¹⁶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

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¹⁷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오늘 성경공부에서 묵상할 성경 본문은 성경의 두 번째 이야기(창 2:4하-3:24)의 서두에 해당된다. 이 이야기는 인간이 마땅히 해야 할 일, 곧 인간이 만들어지고(가령, 그들의 기원), 그들이 돌아가야 할(가령, 그들의 운명) 땅을 돌보고, 생명과 생명체를 소중히 여기고 보호해야 한다는 과제를 인간에게 설명한다. 따라서 이 본문은 생명을 보호하는 일을 올바르게 수행할 것을 요청한다.

생명은 하나님의 선물이며, 지면(땅, 아다마[(‘adamah)])과 수면 위에 운행하다가 인간(아담, ‘adam)과 다른 생명체 속에 깃들었다. 창세기 2:4하-17의 이야기의 역할은 모든 문화에서 나타나는 창조신화와 동일하다. 이런 창조 이야기는 자신들이 누구이며, 어떻게, 왜 자신들의 방식으로 생각하고, 소중히 여기고, 바라고, 행동하는지를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성경의 맥락 안에서 본문 읽기

경작의 시작. 창세기 2:4하-17은 성경의 두 번째 창조 이야기의 시작이며, 더 큰 이야기(창세기-열왕기하)와 성경(구약성경, 성경 전체)의 일부이다. 이 본문은 여호와 하나님이 흙에서 생명을 만드시고 지면에 두셨다고 전해준다. 이것은 깔끔하게 손질된 동산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자연 상태 그대로의 동산에 관한 이야기이다. 건강한 숲에 있는 나무처럼 이 이야기 역시 자연 상태로 진행된다.

성경의 첫 번째 창조 이야기(창 1:1-2:4상)에서는 사물이 분리된다—빛과 어둠, 낮과 밤, 하늘과 물과 마른 땅 등. 그러나 두 번째 창조 이

야기에서는 사물들이 서로 결합된다—땅, 물, 인간, 식물, 동물 등. 두 번째 이야기는 독자들이 땅이 생명을 얻고 푸르게 자라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것을 찾으라고 요청한다. 이 이야기는 결국 생명나무를 지키기 위해 인간이 추방당하는 것으로 끝이 난다(3:23-24).

여호와 하나님은 아직 비를 내리지 않았기 때문에 땅에는 풀과 나무가 나지 않았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다(2:5). 비가 내리지 않는 문제는 다음 구절에서 해결된다. 여러 영어성경에서 표현된 물 공급량은 “안개”, “ 시내”에서 “강물”(New Jewish Publication Society, NJPS)과 “홍수”(New English Bible, NEB)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NEB는 땅이 “갈라졌으며”, 너무 건조하여 타들어가는 땅을 적시기 위해 홍수가 필요했음을 암시한다. 이런 경우에는 홍수가 축복이 되지만, 성경의 다른 상황(가령, 창 6-9장)과 오늘날의 상황에서 홍수는 엄청난 파괴를 초래한다.

물부족 문제는 위(하늘에서 내리는 비)가 아니라 아래 땅로부터 해결되었다. 화자는 에덴에서 발원하여 그 땅을 적신 다음, 네 방향으로 갈라져, 첫 성경 독자들에게는 아마 세계 전체로 간주되었을 지역을 흐르는 강에 대해 주의 깊게 묘사한다(2:10-14). 물은 생명과 삶에 매우 중요하며 지금도 마찬가지다. 물은 하늘, 땅, 바다의 정수(soul)이며 하나님의 동산에서 자유롭게 흘러갔다. 오늘날 물은 많은 지역에서 상품화되고 다툼과 통제의 대상이 되며, 섬 지역의 우물에는 염분이 섞여 있다.

창세기 2:5에서 아담은 땅을 경작해야(till/work) 했고, 또한 2:15에서 아담은 동산을 “돌보고”(NEB), “가꾸고”(NJPS) 혹은 “지켜야”(NRSV) 했다. NRSV는 나중에 가인이 말하는 응답, 곧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이니이까”를 예시한다. 이 두 이야기를 나란히 놓고 보면 아담을 동산에 두신 목적은 동산을 죽이고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살리는 것이었음을 보여준다. 『제노바 성경』(Genova Bible)은 하나님이 “동산을 꾸미기(dress)”(옷을 입히고, 치료하고, 결속시키고, 돌보기) 위해서 아담을 그

곳에 두었음을 암시한다. 이러한 기대를 완수함으로써 땅에 평화가 이루어진다. 이 본문은 마지막으로 땅의 평화로운 모습, 곧 모든 종류의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와 풀이 자연 상태에서 자라고 물이 풍부한 그곳에서 아담이 땅을 갈고 지키고 돌보는 모습을 보여준다. 만일 인간이 자신의 역할을 수행하면 생명이 편만하고 평화가 지속될 것이다. 여기에서 평화의 핵심은 생명과 삶에 대한 책임을 다하는 것이다.

여호와 하나님은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셨다(2:9).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보기에는 좋았지만(3:6 참조) 먹어서는 안 되는 것이었다(2:16-17). 하나님은 한 가지 금지사항을 말씀하시지만 그 이유는 제시하지 않으신다. 다만 그것을 어기면 인간과 하나님과 땅 사이의 평화가 깨어진다는 것을 암시하실 뿐이다. 그러나 우리의 자유에는 제한이 없다. 우리는 자유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땅에 대해 책임 있게 응답할 수 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해볼 가치가 있다. 신자, 시민, 친척, 동료로서 말하고 행동할 때 우리는 자유를 얼마나 책임 있게 사용하는가? 교회, 사회, 국가는 어떠한가?

선악을 아는 것이 어떤 측면에서 치명적인가? 만일 지식이 힘이라면 이 본문은 이에 대해 비판적이다. 본문은 지식이 땅, 정신, 사람을 통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생명을 단호히 옹호하는 방법을 이해하기 위한 것임을 암시한다. 지식의 나무에 달린 지혜의 열매는 죽음이며 죽음은 생명의 운명이 된다. 인간은 땅에서 나와서 땅으로 돌아갈 운명이다. 이 순환은 완전한 순환이며 죽음이 생명의 구조 안으로 들어온다. 죽음은 삶의 부정적이지 아니라 생명의 운명이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하나님이 첫 인간 부부에게 부여하신 제한은 하나님이 인류보다는 생명을 더 우선하셨다는 것을 암시한다.

인간이 생명나무에 접근하는 것을 제한하지 않았기(3:24 이전까지) 때문에 인간은 그 열매를 따먹을 수 있었다. 생명나무의 열매는 자유롭게

허락되었다! “성경의 화자는 우리에게 첫 인간들이 지식의 나무 대신에 생명나무의 열매를 선택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라는 질문을 던진다.¹

창조세계의 시작. 이 이야기는 솔로몬 왕의 시대에 기록된 것이다. 솔로몬 왕의 최고 전성기는 성전을 건축하여 예루살렘이 다윗의 도시가 되고 이스라엘의 종교적·정치적 중심지로 확립된 시기였다. 솔로몬 시대는 정치적·경제적으로 안정되고, 사회적으로 평화롭고,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믿음이 있던 시기였다. 예를 들어, 솔로몬 정원의 열매는 보기에 좋고 먹기에도 좋았다.

이런 가부장적 이야기 속에는 인간에 대한 고양된 관점이 들어 있다. 인간은 땅에서 시작했지만 결국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시 8장) 존재가 되며, 하나님의 동산을 돌보는 책임을 맡게 된다. 세계(동산)는 온갖 장식과 선물, 그리고 동산을 관통하여 흐르는 강처럼 반짝이는 빛으로 장식된 거대한 성탄절 트리와 같다. 세계는 한때 메말랐지만 이제는 만족스럽다. 과거에는 불모지였지만 이제는 푸르다. 과거에는 사막이었지만 이제는 생명체로 충만하다. 하나님은 세계가 계속 돌아가고, 반짝이고, 푸르게 유지되도록 하기 위해 이곳에 인간을 두셨다.

『뉴 아프리카 성경』(*The New African Bible*)²은 세계가 창조될 때 좋았으며, 인간의 노동(즐거운 농사를 포함하여)은 하나님과의 당당한 공동작업이라고 단언한다. 또한 인간은 흙과 하나님의 숨에 속하며, 모든 생명체는 똑같이 존엄하다고 확신한다. 인간은 생명과 삶을 “가꾸는” 일에 동반자가 되기 위해 창조되었다. “하나님과 인간은 땅을 보존할 책임을 함께 진다. 하나님은 유지하시고 인간은 관리한다.”³ 솔로몬은 종교적이고 장엄한 건축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세금과 강제 노동력이 필요했다. 솔로몬은 열왕기상 21장의 아합 왕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솔로몬 시대의 평화와 정의는 선별적이었다. 따라서 이와 대조적으로 이

이야기는 인간의 손이 점토로 벽돌을 만드는 대신(애굽처럼), 땅(물과 인류의 기원이자 운명)을 돌보기 위한 것임을 역설적으로 말해준다. 아모스와 미가의 반복적인 내용에서 이 이야기는 제국의 건설에 도전하고 그 대신 땅, 생명, 삶을 돌보라고 권고한다. 사람을 나누는 장벽을 만들거나, 공포심을 조장하여 전쟁을 일으키거나, 핵무기를 사용하겠다고 위협하는 국가도 동일하게 비판할 수 있다. 또한 신자들을 무관심하게 만들어, 정의가 넘치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평화를 누리도록 하는 데 힘쓰지 않는 신앙 공동체 역시 같은 비판을 면할 수 없다.

현재 상황 속에서 본문 읽기

성(gender)의 시작. 성 문제와 관련하여 많은 질문들이 제기된다. 남자의 관계 네트워크—이 속에서 힘이 발생한다—가 하나님과 땅, 나무와 풀에서 시작하여 여자와 동물로까지 확장되기 때문이다. 여자는 이야기의 후반부에 비로소 등장하지만(2:18-24), 하와의 행동은 아주 오랫동안 독자들에게 영향을 미쳤다.

섹스(sex)와 성(gender)에 대한 건설적인 관심은 최근에 나타난 열망이 아니다. 알렉산드리아의 오리젠(184-254)은 교회로부터 추방되어 231년부터 가이사랴의 피난처에서 살았다. 그는 성경 본문이 중의적인 의미를 갖는 것으로 이해하고 창세기에 대한 설교에서 각 사람은 남자/영인 동시에 여자/혼이라고 주장했다. 오리젠은 가부장적인 환경에 의해 영향을 받았지만 여자를 악하거나 타락한 존재로 보지 않았다.

1,000년 뒤, 평신도 출신의 시인이자 결혼 혐오에 도전했던 작가인 크리스틴 드 피장(1364-1430)은 하나님이 여자를 “가장 고귀한 생명체”로 창조하셨다고 단언했다. 그녀는 여자는 천국에서 창조되었기 때문에 천국에 대한 정당한 권리가 있지만, 남자는 이 세계가 천국이 되기 전에 창조

되었다고 말했다. 또한 여성을 비하하는 남성들을 비판했다. 그런 남성들은 자신의 본성을 왜곡하며 “무자비하며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이다.

1506년 교황 율리오 2세는 미켈란젤로(1475-1564)에게 로마의 시스티나 성당의 천장벽화를 “그려달라고” 요청했다. 미켈란젤로는 천장의 중앙 부분에 9개의 벽화를 그렸는데, 창세기의 창조, 동산, 홍수 이야기를 나타내는 장면을 각각 세 개씩 묘사했다.(<http://mv.vatican.va>) 가장 유명한 그림은 아담의 창조를 그린 장면이다. 이 장면에서 공중에 떠 있는 하나님은 마치 인간에게 생명을 불어넣는 듯이 벌거벗은 인간의 늘어진 손을 가리키고 계신다. 여자의 창조를 묘사하는 장면에서 여자는 남자의 옆에서 기도하듯이 두 손을 하나님께로 향하고, 반면 남자는 죽은 그루터기에 어색한 모습으로 쓰러져 있다. 남자가 쓰러져 있고, 적어도 한 그루 이상의 나무가 동산에 죽어 있다. 벽화에는 뱀이 여자에게 열매를 주고 남자는 서 있는 모습이 그려져 있다. 그의 왼손은 힘이 들어가 있고, 오른손은 마치 열매를 따려는 듯이 선악을 아는 나무에게로 뻗어 있다. 남자는 수동적이지도 않고 무지하지도 않다.

이른바 인류의 타락은 흔히 여자에게 책임이 있는 것으로 여겨져 왔다. 에덴동산 이야기로 인해 많은 벽화에서 이런 관점이 확고하게 나타난다. 미켈란젤로의 벽화는 남자와 여자가 인류 타락의 공동 책임자임을 암시하며, 그에 따라 우리의 성경 이해를 재고하라고 요청한다. 만약 이 이야기를 죄가 아니라 지혜(선과 악을 아는 것)를 얻는 것과 관련된 것으로 읽는다면, 여자와 뱀은 사죄해야 할 당사자가 아니다. 미켈란젤로의 ‘그림’은 독자들이 성경 본문과 그 이야기에 등장하는 여자를 얼마나 오해하고 있는지 깨닫기를 요청한다.

어떤 성경 읽기 공동체는 다른 공동체보다 정체성과 성에 대한 질문을 더 강력하게 제기할 것이다. 이런 질문을 통해 정의와 평화의 문제에 관심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반드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생명, 정의,

평화를 정의할 때 우리는 여성의 경험과 현실을 고려하는가?

피부색의 시작. 이 이야기에는 또 다른 ‘색깔’이 있다. 온갖 종류의 나무와 풀이 에덴동산에서 저절로 자란 것을 볼 때, 우리는 땅이 비옥했다는 것을 분명하게 추정할 수 있다. 땅의 색깔은 아마 검었을 것이다.(내가 사는 곳의 비옥한 땅은 검다) 그런 땅으로 만들어진 인간은 어떤 색깔까? 성경의 화자는 내 질문을 고려하지 않았지만 내가 사는 곳에서는 이 질문이 중요하다.

이것은 인종이나 민족에 관한 질문이 아니라 피부가 검은 사람들을 차별하는 경향과 색깔에 관한 것이다. 토착민이나 소외된 주변인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피부색이 더 검지만 흰 피부를 더 좋아한다.(오세아니아에서도 그렇다) 우리는 언제 어디에서부터 피부색에 따라 차별을 하게 되었을까? 우리는 어떤 피부색에 대해 눈을 감는가? 성경 읽기를 통해 정의롭고 포용적인 지역 사회를 건설하기 위해 선입견의 연결고리를 어떻게 부술 수 있을까?

오세아니아에서 피부색은 직업과 연관된다. 육지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검은 피부를 갖고 있고, 반면 바다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짙은 구릿빛 피부를 갖고 있다. 얼굴색이 더 어두운 선주민들(natives)은 피부색 때문에 가장 심한 차별을 당한다. 한편, 에덴동산 이야기는 생명의 기원과 운명을 검은 땅에서 찾으며, 그것은 지금도 유효하다.

동산 이야기는 계속 반복하여 땅으로 돌아가고, 그 다음 다시 생명나무를 상기한다. 생명나무의 이름은 언급되지만 접근은 제한된다. 이것은 무슨 의미일까? 이야기의 끝에서 여호와 하나님은 반드시 생명나무를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셨다. 하나님은 생명나무를 인간과 공유하고 싶지 않은 듯한 인색한 인상을 주지 않으신다. 생명과 생명나무는 이야기 초반부에 거저 주어졌다. 이야기의 마지막 부분은 생명과 삶이 하나님께 중요한

것이고, 이것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준다. 이야기는 우리에게 이렇게 묻는다. 모든 창조물이 하나님의 선물인 생명을 받도록 하기 위해 우리가 어떻게 환경을 돌보고 지키고 가꿀 것인가? 우리는 생명과 삶을 보호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가? 우리는 누구의 생명을 보호해야 하는가?

성찰과 토론을 위한 질문

다음의 질문은 앞서 언급한 내용을 토대로 추가로 성찰하는 데 이용할 수 있다.

1. 당신이 속한 지역 사회에서 생명과 사업을 지원하고 보호하는 것은 무엇인가?
2. 당신이 속한 지역 사회에서 어떤 형태의 노동이 생명을 존엄하게 만드는가?
3. 당신에게 여성과 성에 대한 어떤 관점이 자연스러운가? (또는 거북한가?) 그 이유는 무엇인가?
4. 당신은 피부색이 검은 사람들에게 대해 어떠한 기본 입장이 정당하다고 보는가? 그 이유는 무엇인가?
5. 만약 당신이 창세기 2:4하-17에 대한 벽화를 그릴 기회가 있다면, 어떻게 그리겠는가?

기도문

생명의 하나님,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보호하며
정의롭게 노력하고, 행동하며 살 수 있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성과 피부색의 깊은 차이를 유념하되

그 차이를 더 깊이 포용할 수 있게 하소서.

생명은 주님이 주신 선물이며

삶 역시 모든 이들에게 주신 주님의 선물이오니

생명과 삶을 간구할 뿐만 아니라 이를 위해 행동하게 하소서.

생명과 용기와 섭리의 하나님

우리를 정의와 평화의 길로 이끄시고

우리의 진정한 모습을 회복하게 하소서. 아멘.

저자 소개

지오니 하비(Jione Havea)는 통가감리교회의 선주민 목사로서 독자들이 비판적인 관점과 상상력을 이용하여 성경을 읽도록 권장하고 도와준다. 지오니는 성경 본문을 리듬적이고 시각적이며 행위적인 사건으로 읽고 소개한다. 그는 호주 Charles Sturt University의 United Theological College에서 성서학을 가르치는 선임 강사이다.

주

1. Norman Habel, 『세계의 탄생, 저주, 회복』(*The Birth, the Curse and the Greening of Earth*) (Sheffield: Phoenix, 2001), 51-52.
2. 『뉴 아프리카 성경』(*The New African Bible*) (Nairobi: Paulines, 2011).
3. Miguel A. De La Torre, 『창세기』(*Genesis*) (Louisville: Westminster John Knox, 2011), 48.

성경공부 2

정의를 물처럼 흐르게 하라

아모스 5:14-24

¹⁴너희는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¹⁵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정의를 세울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시 요셉의 남은 자를 붙잡히 여기시리라

¹⁶그러므로 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모든 광장에서 울겠고 모든 거리에서 슬프도다 슬프도다 하겠으며 농부를 불러다가 애곡하게 하며 울음꾼을 불러다가 울게 할 것이며 ¹⁷모든 포도원에서 울리니 이는 내가 너희 가운데로 지나갈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¹⁸화 있을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 날은 어둡이요 빛이 아니라 ¹⁹마치 사람이 사자를 피하다가 꿈을 만나거나 혹은 집에 들어가서 손을 벽에 대었다가 뱀에게 물림 같도다 ²⁰여호와의 날은 빛 없는 어둠이 아니며 빛남 없는 캄캄함이 아니라

²¹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

나니 ²²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진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²³네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네 비파 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²⁴오직 정의를 물 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 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성경의 맥락 안에서 본문 읽기

아모스 5:14-24에서 선지자는 그들에게 지워진 윤리적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땅의 거주민들에 대하여 심판을 선포한다. 이 본문은 아모스가 청중들에게 마치 여호와의 신탁을 전달하듯이 여호와의 말씀을 대면시키는 장면으로 시작한다.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이 고통, 손해, 위협으로부터 안전하게 피했고 여호와께서 군사력으로 이스라엘 민족의 적들을 패배시키셨다고 증언하지만, 이제는 이 백성이 서로 공정하게 대하지 않고 도덕적으로 제멋대로 행하게 되었다고 아모스는 말한다.

일반적인 의견과 반대로, “정의를 물 같이 흐르게 하라”는 주제는 언약의 관계 밖에 있는 이들에게만이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의 언약 관계에서도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그 이유는, 기원전 8세기경의 선지자였던 아모스에 따르면, 종교적인 내부인들이 신성한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에 참여하지 못한 여자, 남자, 아이들보다 진실한 삶에 대해 자신을 기만하기가 훨씬 더 쉽기 때문이다. 우리는 매주 7일, 하루 24시간 내내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진실하게 살기 어렵다. 특히 우리가 종교적인 자기 보호막 속에 폭 빠지고, 우리를 강하게 기만하는 온갖 예배 방식에 매혹될 때 더 그렇다. 따라서 아모스가 전하는 예언의 핵심은 패배와 추방의 심판이 내려질 것이며, 이를 통해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요구에 불순종한 결과를 감당해야 한다는 것이다.

훈계와 경고. 아모스 5:14-15.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와 그들과 함께 해주시기를 원한다면 그들은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와 같은 대칭적인 형태의 명령을 단호하게 실행해야 한다. 아모스가 언약(covenant)이라는 용어를 언급하지 않았다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한다. 그는 생명이 율법이나 법적 동의에 의해 규제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간의 사랑의 관계 때문에 우리가 죄를 멀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점을 암시한다. 이 성경 구절의 핵심적인 사상은 여호와와 이스라엘 백성의 특별한 관계가 기본적으로 선과 악에 대한 분별을 요구한다는 점이다.

선포와 비탄. 아모스 5:16-17. 16-17절에 묘사된 비탄과 단장의 극심한 고통의 이미지는 도시와 그 주변 지역이 깊은 슬픔—고통에 찬 단말마의 비명, 억제할 수 없는 통곡, 끊임없이 울며 흐느끼는 소리, 극심한 고통으로 부르짖는 소리—에 잠길 것임을 보여준다. 한스 발터 볼프(Hans Walter Wolff)는 이러한 선포-비탄의 상황을 역사적·문화적 맥락에서 바라본다. 그는 8세기의 장례식에서는 금식하고, 옷을 찢고, 삼베로 만든 상복을 입고, 머리털을 밀고, 흙먼지를 머리에 뒤집어썼다고 말한다. 미리 예언된 대재앙 때문에 견잡을 수 없는 고통이 모든 거주지와 삶의 공간에 넘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은 파괴적인 슬픔의 시간에 그들을 도와 줄 직업적인 울음꾼을 불러야 할 것이다.

17절의 짧고 간결한 내용은 여호와가 예전처럼 이스라엘 백성의 일부만 처벌하고 나머지는 남겨두는 것이 아니라 이번에는 이스라엘의 중심부로 오셔서 확실하게 그들을 처벌하실 것이라고 강조한다.

슬픔과 파멸. 아모스 5:18-20. “빛이 아니라 어둠”의 슬픔과 파멸은 치명적인 파괴를 묘사하는 핵심 단어이다. 아모스의 비통한 예언은 날카롭고 극적이다. 그는 “여호와와 의 날”이라는 표현을 세 번 반복한다. 아모스는 특이하고 다양한 수단을 이용하여 자기 환멸과 종교의식의 반복이라는 감옥에서 청중을 끌어내려고 한다.

볼프는 “여호와와 의 날”을 간절히 바라고 사모하는 사람들이 아주 위험한 것을 바라게 되었다고 말한다. “‘여호와와 의 날’이라는 유명한 표현은 원래 승리한 성전(holy war)의 전통을 일컫는 말이었다. 그러나 이제 ‘여호와와 의 날’은 장례식의 비탄이 된다.” 아모스의 예언적인 경고에 따르면, “여호와와 의 날”은 승리의 시간이 아니다. “여호와와 의 날은 피할 수 없고, 음울한 심판의 날, 이스라엘이 최종적으로 패배하는 날이 될 것이다.”¹

19절은 비유로 해석해야 할 이야기로 간주되어 왔다. 이 짧은 이야기는 생명의 위협에서 두 번 도망친 사람에 관한 내용이다. 그는 사자를 피하려다가 갑자기 곰과 다시 마주친다. 쫓기던 그는 두 마리의 위험한 동물에게서 도망쳐 가까스로 안전하게 집으로 들어간다. 그가 기진맥진한 상태에서 안도하며 쉬려고 벽에 손을 대자 갑자기 뱀이 나와서 그를 물어 치명상을 입힌다. 안전하다고 느낀 바로 그 순간에 그는 죽는다.

포기와 소외. 아모스 5:21-23. 아모스는 억압받는 자를 옹호하는 용감한 투사였다. 그는 법질서가 개탄스러운 시대에 살았다. 부유하고 풍족한 상류층은 가난한 사람들의 재산을 빼앗고, 제사장들은 번제나 소제와 같은 봉헌, 종교의식, 희생제사를 지나치게 강조하면서도 도덕적인 행위에는 거의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 아모스는 종교의식과 윤리적인 생활을 분리하는 것을 반대했다. 아모스가 언약의 기준에 반하는 행위는 (1) 정직한 사람들을 박해하고 괴롭히는 것, (2) 술 취함, (3) 인도적인 미덕의 상실, (4) 궁핍한 사람들을 쥐어짜 얻은 물질적 이익으로 벌이는 중

교 축제였다. 사실, 모든 문제의 핵심은 정의와 공의를 요구하시고 여호와 의 임박한 개입을 알리는 살아 계신 하나님과 현실 사이의 괴할 수 없는 대립이다.

많은 성서학자들은 종교적 절기를 포기하기 위한 방편으로 노래 부르기를 거부한 것이 아니라는 데 동의한다. 23절의 명령은 추수 절기 때 노래와 하프, 가수들의 열광적인 소란을 즉시 그만둘 것을 요구한다. 왜냐 하면 그 소리는 아우성치는 소음이라고 표현되며, 이 용어는 불쾌한 전투 소음을 묘사할 때 사용되기 때문이다. 아모스의 추론의 정점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에 대한 이스라엘의 과도한 신뢰가 결과적으로 여호와에 대한 배신을 초래한다고 맹렬히 비판한 것이다. 요약하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의 관계는 파괴될 수 있고, 구원의 역사는 분명히 뒤바뀔 수 있고, 완전히 취소될 수 있다는 것이다.

볼프는 이 본문 이외 어느 곳에서도 “나는 미워한다. 나는 거부한다.”라는 가장 혹독한 거부 발언이 나란히 제시된 적이 없다는 점에 주목한다. 볼프에 따르면, 모든 희생제사와 종교적 헌물, 종교적 절기를 전면적으로 강력하게 거부하는 이런 근본적인 발언에 대한 직접적인 후속 조치는 문제시되는 절기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태도를 분명하게 하는 것이다.

오직 정의를 물 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 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이 본문의 핵심은 종교적 찬양 소리가 아니라 전혀 다른 것이 들려져야 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예언자적인 윤리의 두 가지 핵심인 정의와 공의를 실천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상황 속에서 본문 읽기

“정의를 흐르게 하라”는 말씀은 교육적이고 윤리적인 명령이다. 이것은 도덕을 실천하는 사람이 되라는 요구이다. 정의는 종교 공동체의 사회생활에 형식과 내용을 제공하는 틀이다. 사실, 아모스가 선포한 여호와 신학의 특징은, 하나님에 대한 신실함의 핵심은 우리가 평등이라는 도덕적 원리에 따라 일상적인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다.

아모스는 사자와 곰으로부터 안전하게 피신한 사람이 거짓된 안전 속에서 쉴 때 그의 생명을 잃는다는 이야기를 통해 이런 점을 아주 분명하게 전달한다. 흔히 종교적인 사람들은 여러 예배 행위에 몰두한 채 정의로운 방식으로 행동하는 것을 무시한다.

아모스의 예언이 현대 기독교에 주는 메시지는 언약에 대한 우리의 헌신을 새롭게 하고, 이를 통해 체화된 신앙을 실천하여 이 시대를 효과적으로 섬겨야 한다는 것이다. 이 내용을 달리 표현하자면, 우리의 영혼이 잘 되기를 원한다면 종교의식이나 절기 행사에 참여하는 횟수보다는 일상적인 삶에서 서로가 올바른 관계를 맺는 윤리적 실천에 강조점을 두고 종교를 갱신해야 한다는 것이다. 만일 21세기의 교회가 “정의를 물 같이, 공의가 마르지 않는 강 같이 흐르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말과 행위가 반드시 일치되어야 한다.

성찰과 토론을 위한 질문

1. 만일 언약적 윤리를 지키는 종교적인 여자, 남자, 아이로서 참되게 살고 예배하기 원한다면, 정의가 어떻게 이루지고 있는지 자세히 살펴야 한다. 우리는 다음과 같은 일상적인 현실에서 정의가 흐르도록 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스스로 자문해보아야 한다.

- 재판과정에서 피해를 당하고 핍박을 받는 무고한 사람들
 - 부유한 사람들의 요구 때문에 불법적으로 착취당하는 가난하고 불우하고 억압받는 사람들
 - 폭력, 강탈, 신체적·성적 학대에 시달리는 사람들
 - 불공평한 조세 징수
 - 교회 공동체가 운영하는 세계적인 디지털 생산 시스템에 고착된 비인간적인 요소와 기술관료주의의 영향
2. 우울하고 고통스러운 당신의 삶의 여정에서 특별한 점은 무엇인가?
 3. 이 성경공부를 통해 신실한 제자도를 일상생활에 적용하는 문제에 관해 어떤 새로운 생각을 갖게 되었는가?
 4. 21세기에 이루어진 정의의 사역에 관한 사례를 함께 나누어보라.

기도문

우리를 창조하시고 돌보시는 하나님
그리스도인이 하나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개인생활과 사회생활에서 믿음, 소망, 사랑의 은혜를 표현하는 법을 가르쳐주소서.

다양한 신조와 조직 속에서

우리가 지역민의 필요에 계속 주의를 기울일 수 있게 하시고
경계를 넘어 보편적인 정의를 추구하게 하옵소서.

“살기 위해 악이 아니라 선을 추구할 용기를 주시옵소서.” 아멘.

저자 소개

케이티 캐넌(Katie G. Cannon)는 미국 버지니아 주 리치먼드의 Union Presbyterian Seminary에서 기독교윤리를 담당하는 Annie Scales Rogers 석좌교수이다.

주

1. Hans Walter Wolff, 『선지자 요엘과 아모스에 관한 주석』(*A Commentary on the Books of the Prophet Joel and Amos*) (Philadelphia: Fortress Press, 1977), 256.

성경공부 3

살아 있는 물

사도행전 8:26-40

²⁶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²⁷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²⁸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²⁹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³⁰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³¹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³²읽는 성경구절은 이것이니 일렀으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³³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³⁴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나 자기를 가리킴이나 타인을 가리킴이나. ³⁵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³⁶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³⁷(없음) ³⁸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³⁹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⁴⁰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 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빌립과 에디오피아 내시의 이야기는 성경에서 가장 뛰어난 통찰을 제공하는 매력적인 부분이다. 사도행전 8:26-40은 사도행전 전체 주제의 중간에 해당된다. 사도행전의 전체 주제는 사도행전 1:8에서 나오듯이 예수님의 대위임령에 따라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다. 오순절날 예루살렘에서 복이 선포되어(행 2장) 엄청난 결과가 나타났다. 예수의 제자들은 이제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으로 진출하기 시작했다(행 8:5-27). 이 이야기는 하나님의 사람들과 할례받지 못한 세계를 이어주는 가교 역할을 한다. 아울러 신앙 공동체가 점차 커져가는 예수운동의 주변부에 있던 비유대인들을 향한 선교를 시작할 때 하나님이 수행하신 역할을 보여준다.

성경의 맥락 안에서 본문 읽기

사마리아 선교에서 큰 성공을 거둔 후 빌립은 하나님의 사자로부터 그곳을 떠나 새로운 지역으로 이동하여 새로운 선교를 하라는 명령을 받는다. 사도행전 8:27은 이 이야기에 등장하는 빌립의 상대자를 간단히 소개한다. 그는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말은 관리인 내시”였다. 고대 문서에서 에디오피아는 이집트 남부 지역의 국가들을 가리키며, 오늘날의 수단과 더 남쪽 지역이 여기에 해당할 것이다. 호머는 에디오피아인을 “세상의 끝에 있는” 사람이라고 불렀다.([오딧 세이]([*Odyssey*], 1,23) 따라서 이집트 남쪽 여러 국가에 사는 사람들을 에디오피아 사람으로 불렀으리라고 추정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이 지역은 구약성경 시대에 구스(Cush)로 알려졌고 로마제국 시대에는 누비아(Nubia)라고 불렸다. 그리스 역사가 헤로도토스에 따르면(II.22,3), 에디오피아 사람들은 흑인이었다. 아프리카에서 온 검은 피부의 사람들은 그리스인과 로마인들을 매혹시켰다. 이 본문이 간다게를 언급하기 때문에 이 에디오피아 사람이 아프리카 지역에서 왔다고 충분히 추정할 수 있다.

이 사람은 “내시”로 묘사된다. 그리스-로마의 청중들은 거세된 남자를 뜻하는 “내시”(ευνούχος)라는 단어를 들어보았을 것이다. 고대 시대에 남성성은 성(gender), 섹스, 사회적 지위, 인종에 대한 복합적인 담론에 의해 형성되었고, 내시는 이러한 각각의 담론에 문제를 일으키고 불안정하게 했다. 따라서 성경 본문에 등장하는 여러 내시들은 독단적이고 탄탄한 몸을 자랑하는 고대 남성들의 특징을 보여주었을 것이다. 한편, 이 사람은 “간다게의 관리”였고, “국고를 관리하는 일을 맡”았다. 그는 재무 장관이었다. 이것은 유능하며 권력을 가진 사람(비록 노예라고 해도)이었음을 뜻한다. 그는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왔다. 이 사실은 이 사람의 종교적 정체성에 대해 몇 가지 의문을 갖게 한다. 학자들은 그의 종교적 지위에 대해 의견이 분분하다. 신명기 23:1에 따르면, 내시는 주의 총회(בֵּהָרָה, qahal; LXX, ἐκκλησια)에 들어올 수 없다.

그러나 사도행전 8장에서 명시적으로 인용된 성경 텍스트 간의 상호 관계를 살펴보자. 이사야서에서 이사야는 안식일을 지키고, 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선택하고, 주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내시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산에 오를 것이라고 예언했다. 내시들은 하나님의 기도하

는 집에서 기뻐할 것이며, 그들이 드린 번제와 희생이 제단에서 받아들여질 것이다. 주의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사 56:4, 7-8). 이 예언은 신명기의 금지 내용을 뒤집는 것이다. 내시의 종교적 상태에 대한 또 다른 설명은 내시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곧 할례를 받지 않았지만 유대교를 추종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이다. 학자들은 이런 견해에 반대한다. 그 이유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사도행전 10장의 고넬료의 회심 이야기에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처음 소개되기 때문이다. 사도행전은 다른 사람과 마찬가지로 이 에디오피아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는다(행 10:1-3, 22, 13:16, 26, 43, 50, 16:4, 17:4, 17). 내시는 유대교를 신봉하는 사람이었던 것 같다. 아마도, 그리스도 이전에 메넬리크(Menelik) 1세의 계보를 통해 유대교와 관계를 맺은 에디오피아 사람들이 있었을 것이다. 틀림없이, 340년에 기독교가 전래되기 오래 전, 그리고 성경이 에디오피아어로 번역되기 전에 유대교와 구약성경에 관한 내용이 에디오피아에 전해졌을 것이다.

내시가 읽고 빌립이 상세하게 설명한 성경구절은 이사야 53:7-8이다. 이 본문은 이사야의 네 번째 종의 노래에 속한 것이다. 빌립의 설교 내용은 이 본문 내용과 관련이 없기 때문에 사도행전의 저자는 복음 전도자 빌립이 실제로 사용한 말씀을 정확히 알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 우리는 이 본문에 나오는 복음(εὐαγγέλιον, gospel)이라는 그리스어와 36절에 나오는 내시의 응답에 근거하여 내시가 적어도 단순한 복음을 들었을 것이라고 추론할 수 있다.

누가복음은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볼 것이며(눅 3:6), “모든 족속”에게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전파될 것이며(눅 24:47), 사람들이 “동서남북”에서 와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함께 잔치 자리에 앉을 것(눅 13:29)이라고 말한다.

빌립의 질문에 내시는 자신이 읽은 내용이 무슨 뜻인지 이해하지 못한

다고 대답한다. 그는 도움을 받고자 하는 열린 마음을 갖고 있다. 따라서 그의 대답은 이해와 가르침을 요청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내시는 세례를 받기로 결심하고, 수례를 세우도록 했다. 빌립과 내시는 물가로 내려가 세례를 베풀었다. 내시가 수례를 정지하라는 명령을 내린 것을 보면 수례를 모는 사람이 있었음을 보여주며, 이 사람이 세례 사건을 증언했을 것이다. ‘빌립과 내시가 물로 내려갔다’(κατέβησαν ἀμφότεροι εἰς τὸ ὕδωρ)는 구절은 물속에 완전히 들어갔음을 암시하며, ‘세례(βαπτίζω)’를 주다라는 단어의 가장 기본적인 정의와 연결시켜 볼 때, 이곳에서 수장(water burial)이 이루어졌음이 분명한 것 같다. 이 본문에서 세례와 관련된 주제가 적어도 여섯 차례 언급된 것을 미루어볼 때, 사도행전은 내시의 세례를 복음 메시지에 대한 적절한 응답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 같다.

성령은 다시 빌립으로 하여금 내시를 떠나 다른 곳으로 가게 하신다. 이로 미루어볼 때 앞의 29절에서처럼 하나님의 직접적인 개입이 암시된다. “주의 성령”이라는 구절은 사도행전 5:9, 누가복음 4:18에 나타나며, (천사가 아니라) 성령이 사람을 보내는 내용은 열왕기상 18:12, 열왕기하 2:16, 에스겔 3:14에 나온다. 내시가 기뻐하며 그의 길을 갔다는 사실은 그가 성령을 받았음을 암시한다.

현재 상황 속에서 본문 읽기

이 본문은 1세기의 선교활동에서 하나님이 천사(26절)와 성령(29절과 39절)을 통해 개입하셨음을 훌륭하게 묘사한다. 사도행전은 보편적인 복음이 모든 족속에 전파된다는 주제를 확장한다. 예를 들어, 에디오피아 사람은 이방 선교의 시작이 아니라 예언을 통해 미리 예고되었듯이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소외되었던 사람들을 받아들이는 것임을 나타낸다. 아

올려, 성경에 근거하여 예수를 전파하고 그에 대해 자연스럽게 응답하는 패턴이 은밀하면서도 갑작스러운 전도 방식을 통해 반복된다. 이런 방식은 내시의 마음에 친밀한 이해를 가능하게 할 뿐 아니라 복음 메시지에서 물세례를 포함시켜야 할 필요성을 강조한다.

세례는 사람들에게 죄와 사망이 지배하던 옛 삶을 포기하고, 죄와 사망을 극복한 새 삶으로 들어가라는 그리스도의 요청이다. 따라서 세례는 탁월한 치유의 성례전으로서, 온전한 사람—몸, 영, 혼—으로 회복시키는 것이 그 목적이다. 세례에서 물은 새로운 탄생과 생명을 상징한다. 물의 이미지는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의 모든 곳에서 사용된다. 물은 물리적으로나 상징적으로 생명을 낳고 유지한다. 홍해를 건너고 바로의 군대로부터 구원받은 사건은 이스라엘의 신앙과 삶의 기준이 되었다. 제자들의 세족식은 씻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열두 제자에게 겸손하게 사람들을 섬기는 일을 맡기는 행위였다. 예수께서 자신을 “살아 있는 물”이라고 묘사하셨다는 점을 고려할 때 물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이해할 수 있다. 물은 하나님의 선물이며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이다. 21세기 초, 세계의 물 위기가 심화되고 있다. 빈곤, 권력 남용, 불의한 정치제도, 불평등이 이 문제의 핵심이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물을 잘 관리하고, 모든 사람을 위해 책임 있게 물을 사용하며 공정하게 배분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2004년에 인도에서 발생한 해일과 반복되는 홍수는 교회와 사람들에게 물과, 물을 신학적 성찰과 행동을 위한 중요한 범주로 받아들이는 방법에 대해 중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물을 이용할 때 착취하거나 억압하지 않고, 본래대로 생명을 낳고 유지하는 자산으로 속히 회복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예수 공동체는 처음부터 예배하는 공동체였다. 교회는 근본적인 일치를 매우 강조하면서도, 여러 문화에 속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다양한 방식을 발전시킨다. 현대 신학적 성찰은 세계화가 각

지역의 문화를 약화시키는 동시에 서구화를 수반한다는 점을 거듭 지적한다. 이것은 올바른 지적이다. 복음주의가 다양한 예전(liturgy) 형태를 약화시키는 획일화를 의미해서는 안 된다. 모든 기독교 전통에서 예배는 세계의 불의한 행동을 변화시키는 일과 강하게 연결되어 있다. 예전의 핵심이자 완성인 성만찬은 예수께서 특별히 친밀감을 나타냈던 사람들, 특히 가난한 사람, 힘이 없는 사람, 소외되거나 거부당한 사람을 기억한다.

예배는 삶으로부터의 도피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모범을 따라서 성령의 능력을 통해 삶의 지속적인 변화를 추구하는 것이다. 우리가 예배에서 메시지를 들을 뿐만 아니라 죄로부터의 해방, 그리고 성령의 실제적인 임재를 통한 그리스도와의 사귄(koinonia)이라는 위대한 사건에 참여하는 것이 사실이라면, 우리는 개인적으로 그리스도의 몸과 하나가 되고, 우리의 작은 존재가 그리스도의 일부로 변화하는 사건이 틀림없이 일어날 것이며, 아울러 실제 생활에서도 분명히 나타날 것이다. 예배는 개인의 일상생활에서도 계속되어야 한다. 각 신자들은 자신의 마음속 비밀 제단에서 개인적인 “예배”를 계속 드리고, “모든 세상”을 위한 복음을 삶으로 선포해야 한다. 이 모든 것이 지속되지 않는다면 예배는 불완전한 것이다.¹

아울러,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해석학적 공동체이다. 교회 내에는 다양하고 많은 해석학적 목소리가 있지만 그리스도에 대한 공동의 신앙을 고백한다. 교회는 빌립처럼 “읽는 것을 깨닫는가?”라고 항상 묻는다. 교회는 성경을 하나님의 거룩한 영감을 받은 말씀이며 인간적인 방식으로 표현된 것으로 이해한다. 이런 관점은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를 묘사한 방식, 곧 인간으로 나타난 하나님의 말씀과 비슷하다. 성경의 여러 책은 예수 그리스도가 신이면서 동시에 인간, 곧 “신인 양성을 갖춘” 존재라는 점을 공유한다. 성경의 책들은 영원하지만 그것들이 기록된 시대의 영향이

상당히 남아 있다. 성경에 대한 주해(읽기와 이해)는 그리스도에 대한 주해이다. 그리스도는 성경과 모든 교회생활을 해석하는 열쇠이다.

따라서 교회의 선교는 지금 여기에서 예수의 삶과 죽음에 관한 이야기를 해석하고, 그의 메시지를 하나님의 창조 능력의 메시지로 선포하는 것이다. 오늘날 교회는 교회와 선교의 제도적인 특징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그 모습을 미리 보여주는 종말론적 인식을 예언자적인 자세로 말하고, 신학적으로나 실천적으로 다시 생각하고 재평가해야 한다. 이 궁극적인 현실을 미리 보여줌으로써 이에 따라 역사에 대한 교회의 접근방식이 항상 결정되어야 한다. 교회의 선교는 용서하고, 두려움과 망설임을 극복하고, 모든 사람, 특히 하나님의 백성이 폭력, 억압, 빈곤, 전쟁으로 고통당하는 상황에 처한 사람들을 위해 정의를 옹호하는 일을 하는 것이다. 선교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인간과 하나님의 창조세계 전체에 대한 사랑과 존중의 정신 속에서 서로 나누고 섬기고 새롭게 하는 일에 참여하게 해야 한다. 교회의 복음은 세상의 것이 아니며, 따라서 문명, 부, 지식에 대한 성찰이 아니다. 복음은 그리스도의 자기비움(kenosis)과 부활과 오순절 성령강림의 신비 속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영광에 관한 것이다. 만일 교회와 신자들이 선교를 통해 이 복음을 전달하지 못한다면, 세상에 꼭 필요한 것을 제공하지 못할 것이다. 선교 사역은 단순히 어떤 사상을 선포하거나 소수의 개인들을 초대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예수께서 그랬듯이 분열된 세상의 모든 민족을 불러서 믿음과 성령의 한 공동체를 건설하여 성, 인종, 문화, 사회적·경제적 지위나 계급의 장벽을 극복하는 것이다. 선교 사역은 함께하는 여정으로의 초청이며, 세계 전체를 변화시키는 예배에로의 초대이다.

성찰과 토론을 위한 질문

1. 당신이 에디오피아 사람이라고 상상해보라. 이사야 선지자에 대한 빌립의 설명을 들은 후 어떤 느낌이 드는가?
2. 빌립과 그의 선교 방법에 관한 생각과 느낌을 네 단어로 표현해보라.
3. 새로운 선교 선언문인 <함께 생명을 향하여>의 59단락에서 이렇게 선언한다. “지역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선교에 참여하는 중요한 길이다. 우리는 세례를 통해 그리스도께 안에서 함께 속한 형제와 자매가 된다.(히 10:25) 교회는 모든 사람을 환영하는 포용적인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교회는 말과 행동, 그리고 존재 자체를 통해 다가오는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미리 누리고 증언한다. 교회는 신자들의 모임이며 그들은 평화 가운데 여정을 떠난다.” 당신은 이 내용을 우리의 이야기와 연결하여 묵상할 수 있는가?

기도문

삼위일체이신 하나님,
 우리를 고난, 분노, 위험, 결핍으로부터 구해주소서.
 우리가 읽는 내용을 이해하도록 도와주소서.
 우리를 인도하사 빛과 지혜의 길로 이끄소서.
 지금부터 영원히 하나님의 복음을 말과 행동으로 나타내도록 우리를 도와주소서.
 생명의 하나님,
 빌립과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하셨듯이 우리를 정의와 평화로 이끄소서. 아멘.

저자 소개

엘레니 카셀로리-해치바실리아디(Eleni Kasselouri-Hatzivassiliadi)는 그리스정교회의 성서학자이며, 그리스의 Hellenic Open University에서 가르치고 있다.

주

1. 알바니아 대주교 아나타시오스 지안놀라토스(Anastasios Giannoulatos).

성경공부 4

뜻으로 본 교회의 탄생: 성령 충만한 출발

사도행전 2:1-13

¹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²홀연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³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⁴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⁵그 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⁶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⁷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⁸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나 ⁹우리는 바대인과 메대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보다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¹⁰브루기아와 밤벨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¹¹그레테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¹²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하며 ¹³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사도행전은 예수운동이 고대 지중해 지역으로 성장해가는 역동적인 과정을 묘사한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팔레스타인-유대지역의 경계를 넘어 로마제국의 헬레니즘 세계로 확장된다. 누가는 기독교운동이 왕성하게 발전하는 모습을 소개하면서 서두에 창의적이고 용기 있는 그리스도의 증인들에게 생명력을 부여한 주체로서 성령을 제시한다. 사도행전은 성령에 의해 능력을 부여받은 최초의 그리스도인들에 관한 이야기이며,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기 위해 개인과 공동체의 놀라운 내적인 힘으로 지리적·문화적·정치적·영적 제약에 저항하고 도전했다(행 1:8).

사도행전의 첫 몇 장은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최초의 예루살렘교회의 형성과 성격에 대해 묘사한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같은 저자가 기록했으며, 이 두 책은 하나의 작품으로 읽어야 한다. 예언자적 전통, 특히 예언자적인 성령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일관된 주제이다. 예수를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포로 된 자에게 자유를, 눈 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는’(눅 4:18-19) 성령 가득한 예언자로 묘사하는 누가가, 예수의 제자들이 모인 최초의 공동체를 성령이 충만한 예언자적 공동체, 정의와 사랑을 실천하는 공동체로 생각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성경의 맥락 안에서 본문 읽기

함께하는 공동체(1절). 누가는 사도행전 1-5장을 통해 예루살렘 교회의 형성과 생활을 묘사하기 위해 먼저 1절을 전략적으로 배치한다. 우리가 이 첫 구절에 주목하는 이유는 예수의 제자들이 함께 모여 있고자 한 의도를 명백하게 보여주기 때문이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행 2:1). 그들은 얼마 전 자신들이 이해할 수 없고,

충격적이고 믿기 힘든 일련의 사건을 경험했다. 그들은 로마제국에서 가장 가혹한 사형 방법으로 여겨졌던 십자가에서 예수(그들은 예수를, 하나님 나라를 성취할 주와 그리스도로 믿고 신뢰했다)를 잃고 극심한 슬픔에 빠졌다. 설상가상으로 그들은, 제자 중 한 사람이 주를 배반했고, 예수와의 관계가 드러나 안전과 생존이 위태로운 상황에 처하자 자신들 역시 믿음을 잃고 도망쳤다는 사실 때문에 틀림없이 견디기 힘든 수치심을 느꼈을 것이다. 그러나 얼마 후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이라는 뜻밖의 놀라운 사건을 경험했다. 예수가 하늘로 올라가실 때, 그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는” 모습에서 그들이 어찌할 바를 모르고, 이러한 일련의 특별한 경험을 즉시 이해하지 못했음을 알 수 있다(행 1:10).

이러한 여러 가지 놀라운 경험—그들의 이해 수준을 초월하는 것이었다—에 대한 제자들의 반응은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것이었다. 그들이 어부, 세리, 열심당원, 남자와 여자로 구성된 이질적인 집단이었다는 것은 중요하지 않았다.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행 1:14). 그들은 당혹한 가운데 공동체로 모였는데, 신비하거나 초자연적인 능력을 덧입으리라는 기대로 모인 것이 아니라, 두려움과 근심, 그리고 불확실성 속에서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이 소망을 함께 경축하기 위해서 모였다.

성령이 충만한 공동체(2-4절). 오순절 날이 왔다. 오순절은 원래 유대인들의 칠칠절을 그리스어로 나타낸 것이다. 이 절기는 7주간의 추수를 마치고 햇곡식과 그 외 다른 산물을 주님께 바치는 것이다(레 23:15-16, 신 16:9). 바로 그날, 제자들은 예수께서 약속하신 대로(행 1:5)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다(2-4절). 성령이 그들 위에 “급하고 강한 바람 같고” “불의 혀같이” 임했다. 성경의 전통에서 바람은 하나님의 성령을 상징하는데, 성령은 생명을 회복시키고 임의로 운행하신다(겔 37:9-10, 요

3:8). 불은 하나님이 시내산에 내려오실 때의 형상이다(출 19:18). 성령 강림은 불세례와 관련시켜 볼 때 깊은 상징적인 의미를 갖는다.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눅 3:16).

성령은 제자들에게 다른 언어로 말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하셨다. 고린도 교회의 이해할 수 없는 방언과는 달리(고전 14:2, 고후 12:1-4), 그들은 여러 가지 차이에도 불구하고 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한 기본 요건인, 서로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을 경험하였다. 바벨의 저주는 제거되었다(창 11:1-9). 바벨에서는 다양한 언어 때문에 서로 의사를 소통하거나 이해하지 못했지만, 오순절에는 의사소통이 회복되고 서로 이해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렸다. 그들은 자신들이 믿음, 증언, 소망으로 하나가 되었다고 보았기 때문에 다양성을 하나님의 선물로 경축할 수 있었다. 성령이 급한 바람과 불의 허갈이 그들에게 임하셨다. 바람과 불은 격분, 힘, 파괴, 정화, 전환, 변화와 관련된 이미지이다. 성령 강림은 제자들의 모임이 다른 공동체 모임과 구별되는 목적을 가졌다는 것을 말해주는가?

대안적인 공동체(5-11절). 이제 장면이 집 안에서 밖으로, 화자에서 청중으로 바뀐다(2:5-11). 세계 각처의 유대인 거주지, 곧 디아스포라에서 예루살렘으로 순례를 온 다수의 유대인들이 성령이 일으킨 소리를 듣고 호기심을 갖고 모였다. 다양한 국가와 민족의 이름이 길게 나열된 것은 “하늘 아래의 모든 족속”을 암시한다. 대략적으로 말하자면, 이 목록은 먼저 동쪽에서 서쪽으로, 그 다음 북쪽에서 남쪽으로 이동하며, 기독교의 선교 범위가 “땅 끝”(1:8)과 관련된다는 인상을 준다.

여기에서 눈여겨볼 점은 “갈릴리 사람”의 중요성이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이 사건의 지도자들이 갈릴리 사람임을 알고 놀라며 당혹해 한다. “하나님의 큰 일”(2:11)을 선포하는 선교는 주변부 사람들에게 의해 시작된다.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고 성령의 선구적인 도구로 쓰임 받은 사람

들은 바로 멸시받고 소외된 갈릴리 사람들이었다. 뒤이어 나오는 이야기에서 한때 존경할 가치가 없는 사람으로 간주되었던(요 1:46) 갈릴리 사람들은 이제 “형제”(2:37)라고 불리고 나중에 공동체를 가르치는 지도자로 인정받는다(2:42). 성령 강림은 이러한 소외된 사람들을 회복시키고 그들을 변화시켜 창조적인 주체로 만들었고, 그 결과 언어와 문화가 다양한 사람들 사이에 일치의 가능성이 열렸다. 오래된 사회심리적 고정관념이 극복되고, 특정 계층이나 지역의 중심주의가 뒤집어지는 일이 일어났다. 교회는 진정으로 인간이 함께하는 일치의 경험이었고, 무익한 위계적인 힘의 역동에 지배되는 것이 아니라, 상호 간의 인정과 책임에 의해 다스려지는 공동체였다.

강력한 일치는 일부 사람들의 힘이 다른 사람들을 압도하지 않는 경우에만 이루어진다. 우리는 억압적인 형태의 일치를 많이 경험하고 또한 그에 압도당한다. 진정한 일치는 겸손, 정직, 서로의 차이를 용납함, 비전과 목적을 공유하는 정신 속에서 유지된다. 오직 그럴 때에만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우리의 일치가 성령의 선물이 된다. 세 공관복음서에서 보듯이, 예수는 권세를 거절하신 후 성령을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신다. 우리가 지배하고 파괴하는 권세를 거부할 때, 성령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단지 개인이나 개인적인 자기완성이 아니라 더 큰 공동체를 유익하게 하는 새로운 가능성을 만드신다.

교회의 선교는 복음을 증언하는 일에만 한정하지 말고, 사람들과 지역 사회가 개방적이고 정의롭고 포용적인 공동체가 되도록 인도해야 한다. 예루살렘의 변두리 허름한 골목, 이층 다락방이 성령으로 충만한 창조적인 운동, 교회의 탄생지가 되었다. 주변부에서 시작된 이 선교는 사도행전의 다음 장에서도 계속되며, 섬김을 받으려는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생명을 주시는 선교의 발자취를 따라서 이루어진다(막 10:45).

마지막 두 구절(12-13절)은 갈릴리 사람들을 통해 놀랍게 나타난 성령의 능력에 대한 두 가지 상반된 반응을 보여준다. 일부는 놀라고 당황해 하면서 이 새로운 사건의 의미를 알고자 하고, 일부는 여전히 무관심하고 아무런 생각 없이 뿌리 깊은 전통적인 편견을 강화하며 제자들을 술주정뱅이라고 부르며 모욕했다. 이런 새로운 공동체는 권력과 특권을 누리는 지역이나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주변부 사람들에 의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의심과 조롱의 대상이 되었다.

예언자적 공동체(14-36절). 이 성경 구절은 지금 우리가 묵상하는 본문은 아니지만 연이어 나오는, 예언자적인 성령에 의해 탄생한 초대교회의 기원과 성격에 관한 이야기의 서두에 해당된다. 이어지는 설교(14-36절)에서 베드로는 누구에게나 성령을 부어주실 것이라는 비전을 선포했던 예언자 요엘의 글을 인용한다. 그뿐만 아니라 그는 무지하고 거만한 유대와 로마의 권세자들이 예수를 죽인 것을 비판하는 예언자로서의 역할도 수행한다(23절). 공동체의 일치를 유지하려면 서로간의 책임과 의무를 수행하고, 기존의 억압적이고 불의한 기준과 가치에 동의하지 않고 저항하려는 용기를 가져야 한다.

성령으로 충만한 신앙 공동체의 놀라운 특징은 소유를 공유하는 것이었다(37-47절). 초대교회는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44-45절) 주었다. 재산 공유는 의무 규정이 아니라 자유로운 의사와 연민에 기초한 자발적인 행동이며, “각자의 필요에 따라”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다. 누가의 묘사는 초대교회를 진정한 우정이라는 그리스 철학과 헬라 철학의 이상이 이루어진 이상적인 공동체로, 아울러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신 15:4, 행 4:34)라는 구약성경의 약속이 성취된 신앙 공동체로 제시하려는 시도인지 모른다. 중요한 것은 소유를 공유하는 행위가 진정

한 평화를 만드는 정의의 비전을 실현한다는 점이다. 초대교회는 연민과 공유의 예언자적인 대안 경제를 실천했다.

현재 상황 속에서 본문 읽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의 사역을 거의 대부분 개인적인 방식으로만, 주로 방언 기적으로만 편협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초대교회에서 성령이 일으킨 진정한 기적은 예언자적이고 대안적인 정의와 평화의 비전에 따라 사는 신앙 공동체를 세운 일에서 드러난다. 복음서에서 예수를 성령의 기름부음을 받은 예언자로 묘사한 누가는 사도행전에서 하나님의 예언자적인 사역이 예루살렘 교회의 생활에서 개인적으로, 공동체적으로 계속되었음을 보여주었다. 예수께서는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눅 12:15)고 말씀하셨다. 이것은 초대교회를 풍성한 생명, 기쁨, 찬양으로 풍요롭게 하면서 인도하는 지혜였다. 초대교회는 이른바 개인주의적인 ‘번영복음’을 알지 못했다(5:1-11).

성령에 대한 성경적 이해를 회복하는 것은 21세기 교회에 매우 중요하다. 예언자적인 성령은 교회의 어머니이며, 이 교회는 존재와 행위 면에서 차별성 있는 공동체가 되라는 부름을 받고 있다. 너무나 자주 개인주의적이고 은사만 강조하는 관점이 성령의 예언자적인 모습을 가리고 성령의 풍성함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빈곤하게 만든다. 누가의 관점에서 볼 때 개인의 치유, 담대한 복음 선포, 예언자적인 대안 공동체의 실천은 결코 분리될 수 없는 교회의 사역이다(행 2-4장). 치유, 복음 선포, 예언자적인 차원은 서로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

누가는 바람과 불과 같은 생생한 비유를 사용하여 성령 강림을 묘사했다. 초대교회를 탄생시킨 성령의 역사적 창조성은 성령의 우주적 창조

성을 생각나게 한다. 고대 세계의 문명화된 중심 도시 중 한 곳에서 신앙 공동체를 창조한 성령은 자신의 신성한 에너지 안에, 심지어 길들일 수 없는 광야까지 연상하게 하는, 인간의 통제를 초월하여 운행하는 힘을 내포하고 있었다(행 8:26). 결국 초대교회는 폐쇄적이고 자기충족적인 기관이 아니라, 성령이 창출하는 삶의 초월적인 영역에 열려 있는 새로운 창조였다(고후 5:17). 배타적인 카리스마적 이해나 폐쇄적인 합리주의는 성령의 풍성함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다. 교회의 일치를 유지시키는 것은 바로 성령의 인도를 받는 공동체의 공동의 비전이다.

성찰과 토론을 위한 질문

1. 성령의 선물로서의 일치는 언제,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2. 우리는 힘을 일치의 진정한 표현과 관련지어 어떻게 재구상할 수 있는가?
3. 당신의 교회에 예언자적 특징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혹은 부정한다면 그는 이유는 무엇인가?
4. 진정한 일치의 시금석은 공동의 선을 만들어내고, 모든 사람 특히 주변부로 밀려난 사람들과 차별받는 사람들을 위해 새로운 현실을 창출해내는 능력이다. 당신이 경험한, 영감 넘치는 진정한 일치의 사례를 나누어보라.
5. 당신의 교회는 특히 장애인들을 충분히 포용하는가?
6. 당신의 지역 사회와 문화에 스며 있는 “타자”(the other)에 대한 고정관념의 예는 무엇인가? 이러한 억압적인 문화적 함정에 빠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7. 우리는 이민의 현실을 어떻게 바라보는가? 일치의 기회인가 아니면 장애물인가?

기도문

풍성한 생명의 하나님,
우리는 당신이 교회를 창조하시던 날을 기억합니다.
그것은 성령의 능력으로 새롭게 시작된 놀라운 날이었습니다.
치유하시고 예언하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힘을 주셔서
기쁨, 능력, 일치로써 당신과 세상을 섬기게 하옵소서.
은혜와 사랑이 충만한 하나님의 창조적 사역에 대한 증인으로서
정의와 평화를 위해 싸울 수 있는 용기를 교회에게 주시옵소서.
아멘.

저자 소개

배현주는 부산 장로회신학대학교 신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며 대한예수교장로교회 목사이다.

성경공부 5

흔돈스러운 세상에서 정의를 위한 투쟁

열왕기상 21:1-22

¹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이스라엘에 포도원이 있어 사마리아의 왕 아합의 왕궁에서 가깝더니 ²아합이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되 네 포도원이 내 왕궁 곁에 가까이 있으니 내게 주어 채소밭을 삼게 하라 내가 그 대신에 그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네게 줄 것이요 만일 네가 좋게 여기면 그 값을 돈으로 내게 주리라 ³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하니 ⁴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아합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내 조상의 유산을 왕께 줄 수 없다 하므로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왕궁으로 돌아와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아니하니

⁵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나아와 이르되 왕의 마음에 무엇을 근심하여 식사를 아니하나이까 ⁶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네 포도원을 내게 주되 돈으로 바꾸거나 만일 네가 좋아하면 내가 그 대신에 포도원을 네게 주리라 한즉 그가 대답하기를 내가 네 포도원을 네게 주지 아니하겠노라 하기 때문이로다 ⁷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이르되 왕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시나이까 일어나 식사를 하시고 마음을 즐겁게 하소서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왕께 드리리이다 하고

⁸아합의 이름으로 편지들을 쓰고 그 인을 치고 봉하여 그의 성읍에서 나봇과 함께 사는 장로와 귀족들에게 보내니 ⁹그 편지 사면에 이르기를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에 높이 앉힌 후에 ¹⁰불량자 두 사람을 그의 앞에 마주 앉히고 그에게 대하여 증거하기를 내가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게 하고 곧 그를 끌고 나가서 돌로 쳐죽이라 하였더라 ¹¹그의 성읍 사람 곧 그의 성읍에 사는 장로와 귀족들이 이세벨의 지시 곧 그가 자기들에게 보낸 편지에 쓴 대로 하여 ¹²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히매 ¹³때에 불량자 두 사람이 들어와 그의 앞에 앉고 백성 앞에서 나봇에게 대하여 증언을 하여 이르기를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매 무리가 그를 성읍 밖으로 끌고 나가서 돌로 쳐죽이고 ¹⁴이세벨에게 통보하기를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나이다 하니

¹⁵이세벨이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다 함을 듣고 이세벨이 아합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돈으로 바꾸어 주기를 싫어하던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소서 나봇이 살아 있지 아니하고 죽었나이다 ¹⁶아합은 나봇이 죽었다 함을 듣고 곧 일어나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리로 내려갔더라

¹⁷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¹⁸너는 일어나 내려가서 사마리아에 있는 이스라엘의 아합 왕을 만나라 그가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리로 내려갔나니 ¹⁹너는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고 하셨다 하고 또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흘린 곳에서 개들이 네 피 곧 네 몸의 피도 핏으리라 하였다 하라

²⁰아합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 대적자여 네가 나를 찾았느냐 대답하되

내가 찾았노라 네가 네 자신을 팔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므로²¹ 여호와와 말씀이 내가 재앙을 네게 내려 너를 쓸어버리되 네게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에 매인 자나 놓인 자를 다 멸할 것이요²² 또 네 집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처럼 되게 하고 아히야의 아들 바아사의 집처럼 되게 하리니 이는 네가 나를 노하게 하고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한 까닭이니라 하셨고

성경의 맥락 안에서 본문 읽기

열왕기상에는 가나안 사람들의 후손인 페니키아의 공주 이세벨이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이자 오므리의 아들인 아합과 결혼했다고 기록되어 있다(왕상 16:21). 이세벨의 아버지는 시돈 왕 옛바알이다. 바알은 가나안의 농경과 풍요의 신이었다. 반면 여호와와는 이스라엘과, 이세벨이 결혼한 아합의 신이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라고 말하며 나오미와 함께 머물기를 선택했던 룻과 달리, 이세벨은 그녀의 신 바알과 바알신의 배우자 아세라를 이스라엘로 갖고 온다. 열왕기상 16:31-33은 아합이 바알을 쉽게 받아들이고 제단까지 지었음을 보여준다.

³¹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옛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³²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³³또 아세라 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의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학자들(그리고 신명기 기자)은 이런 상황(종교적 신념에 반대하는 상황)에서 나봇의 포도원 이야기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세벨

은 그녀의 “우상” 종교에 따라 행동하고 살인이라는 악한 방법을 통해 땅을 탈취한다. 달리 말하면, 이 본문은 독자가 이 이야기를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여러 가지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우리는 독자가 나름의 다양한 추정을 하면서 이해하듯이 이런 상황을 상상할 필요가 있다.

열왕기상 21:2에서 아합은 나봇에게 그의 포도원을 달라고 요구하면서, 그에 상응하는 다른 포도원을 주거나 땅값을 지불하겠다고 말한다. 그러나 나봇은 포도원을 팔지 않겠다고 대답한다.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앞의 성경 구절에 따르면 아합은 “개종하여” 바알을 예배했다. 그럼에도 그는 여호와가 자기에게 조상의 땅을 주었기 때문에 팔 수 없다는 나봇의 주장을 받아들이는 것처럼 보인다. 땅을 각 가문에 배분하는 분은 여호와이며 가문이 그 땅을 관리해야 한다는 사상은 민수기 27:5-11에 나온다.

이세벨은 아합이 왕이기 때문에 땅을 차지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여호와의 율법을 전혀 존중하지 않고 포도원을 차지할 왕의 “권리”를 내세운다. 아울러, 프랜시스 앤더슨(Francis Andersen)이 지적하듯이, 율법에 따르면, 토지 소유자가 죽더라도 토지는 가문의 유산으로 물려진다. 그러나 이 이야기에서는 왕이 포도원을 차지해버린다. 역설적이게도, 이세벨은 나봇이 신성모독죄를 지었다고 날조하여 죽인다. 나봇은 레위기 24:13-16에 나오는 율법에 따라 돌에 맞아 죽는다.

앤더슨은 “열왕기상 21장에 기록된 나봇의 사법 살인(judicial murder) 이야기를 읽는 독자들은 이와 같은 악랄한 잔악행위에 대한 열왕기 저자의 격분에 공감하고, 아합에 대한 엘리야의 판결에 흔쾌히 동의한다.”고 주장한다. 그는 계속하여 덧붙인다. “성서 주석가들이 이 이야기에서 왕, 시민, 재산에 관한 이스라엘과 가나안의 사상이 충돌하고 있다고 본 것은 옳다. 나봇은 세습 유산을 포기하려고 하지 않았고(3절), 이세벨은, 왕은 자기가 원하는 것이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7절).”¹

현재 상황 속에서 본문 읽기

이 본문에서 여왕 이세벨의 지원을 받은 아합 왕은 이스라엘을 시장체제에 맞추려고 노력했다. 시장체제에서는 토지는 한 가문이 영구적으로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사고 팔 수 있다. 왕의 백성인 나봇이 왕의 요구를 거부한 이유는 토지 가격이 너무 적거나 자신이 포도원을 계속 소유하고 싶었기 때문이 아니다. 그 땅은 해방 공동체로서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언약의 일부로 고대에 그의 가문에 할당되었다. 이 이야기에서는 두 가지 경제체제, 곧 여호와 경제와 바알 경제가 서로 경쟁하고 있다. 아합 왕은 효율성, 생산성, 경제 번영이란 명분을 내세우며 그의 현대화 계획을 도입하고 있었다. 시돈 출신의 아내가 권고한 바알 경제는 그런 계획을 추진할 수 있는 완벽한 이데올로기였다. 그러나 나봇의 경우, 출애굽 공동체로부터 물려받은 여호와 경제의 정의, 평등, 공동체성은 타협할 수 없는 신앙의 문제였다.

사회-역사적 관점에 기초하여—가령, “나쁜” 이세벨과 “선한” 엘리야—이 이야기를 바라보는 것이 “상식적인” 관점인 것처럼 보이지만, 필리스 트리블(Phyllis Trible)은 이 본문에 대한 문학적 읽기에 기초하여 이러한 이분법적인 관점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그녀는 신명기 기자가 두 명의 양극화된 인물 사이에 분명한 선을 그었지만, 실제 본문은 “그 의미가 확정적이지 않고… 심지어 새로운 설정도 가능하다.”라고 제안한다.²

아마 이 본문을 제대로 읽으려면 이 두 학자의 읽기 사이를 계속 오가야 할 것이다. 이세벨은 남편이 자기 소유가 아닌 땅을 차지하도록 하기 위해 무고한 사람을 죽인 “악한 여왕이다. 하지만 우리는 누구의 렌즈를 통해 이 본문을 읽는가에 주의해야 한다. 트리블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이세벨을 찬성하는 입장에서 보면 엘리야는 바알 선지자들을 살해했고,

이스라엘에 자기의 신학을 강요하고, 이스라엘 왕들에게 자기의 요구를 실행하게 하고, 이스라엘 땅에서 문제를 일으켰기 때문에 비난받아야 한다. 엘리야를 위한 묘비문은 “이 저주받은 사람을 보라…”가 될 것이다. 이와 반대로, 이세벨은 자기의 종교적 확신에 충실하고 왕의 특권을 옹호하고, 남편과 자녀를 지원하며, 적과 싸워 죽였기 때문에 높이 존경을 받아야 할 사람이다. 그녀의 묘비문은 “나의 어머니, 나의 어머니!”가 될 것이다. 두 가지 반대 입장이 하나로 수렴된다. 성, 계급, 민족, 종교, 땅 등 서로 다른 것들이 유사점을 만들어내어 서로 양립할 수 없는 것들을 하나로 통합한다.³

그러므로 이 본문은 처음에 언뜻 보이는 것보다 더 복잡하다고 할 수 있다. 우리는 오늘날 선주민들(natives)이 “적법한” 수단에 의해 빼앗긴 그들의 토지를 되찾으려는 지역을 포함하여 팔레스타인, 짐바브웨, 이라크, 그 이외 지역에서 벌어지는 토지와 정의를 위한 수많은 투쟁에 비추어 우리 자신의 생각을 면밀하게 살펴보아야 한다. 땅과 관련한 재산권, 소유권, 획득, 필요, 권리에 대한 우리의 생각은 이 본문에 비추어 깊이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우리가 어떤 결론을 내리든 간에, 그것은 다른 지역 사회, 전통, 계급에 속하거나, 또는 성(gender)을 가진 이웃들의 대안적인 관점에 비추어 검증해보아야 한다. 끝으로, 선지자 엘리야의 개입을 통해 아합 왕은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고 회개한 후(왕상 21:27) 그 땅에서 정의를 추구했다.

성찰과 토론을 위한 질문

1. 토론 그룹에서 본문을 소리 내어 읽어본다. 자원자를 정해서 각자 맡은 부분을 읽게 한다.(자원자들이 연극의 대본을 읽는 방식으로 읽도록 요청한다—해설자, 아합, 나뭇, 이세벨, 이스라엘 사람들, 하나님, 엘리야)
2. 각자가 생각하는 본문의 주제와 각 인물의 주요 특징에 대해 묵상해 본다.
3. 오늘날 개인 혹은 공동체로서의 우리는 어떤 면에서 이세벨, 엘리야, 이스라엘 사람들과 비슷한가?
4. 개인, 교회, 국가가 다른 사람들의 유산과 권리를 몰수한 것에 대해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회개할 수 있는가?
5. 에큐메니칼 운동은 시장에서 예언자적으로 행동할 필요가 있는가? 하나님의 정의와 “시장의 정의”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기도문

생명의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살고 움직이고 존재합니다.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셔서 우리가 현명하게 살게 하소서.

우리의 귀를 열어주셔서 서로의 말을 듣게 하소서.

우리의 혼란과 많은 잘못된 선택을 용서해주시고

우리가 잘못할 때 회개할 수 있게 하소서.

하나님의 정의를 위해 새롭게 싸울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옵소서. 아멘.

저자 소개

사로지니 나다르(Sarojini Nadar)는 남아프리카공화국의 University of Kwazulu-Natal의 조교수이며, 또한 성(gender) 및 종교 프로그램의 책임자로 일하고 있다.

주

1. Francis Andersen, "The Socio-Juridical Background of the Naboth Incident," Journal of Biblical Literature(1966): 46.
2. Phyllis Tribble, "Exegesis for Storytellers and Other Strangers," Journal of Biblical Interpretation 114/1(1995): 3.
3. Ibid., 17-18.

성경공부 6

평안히 가시오

요한복음 14:27-31

27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28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29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30이 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니 이 세상의 임금의 오젼음이라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31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예수는 대안과 차이점과 딜레마를 제시하신다. 그가 제시하는 평화는 “세상이 이해하는” 평화와는 다르다. 이런 면에서 그는 평화라는 단어—이스라엘 전통에서 강력하고 매우 중요했다—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한다. 그는 우리로 하여금 삶에서 평화가 어떤 가치를 갖는지 질문하게 하고 또한 결정하게 한다. 아울러 우리가 이 평화를 통해 예수님의 현존과 사

랑에 연합한다는 점을 알려주신다. 사도 바울이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엡 2:14)고 인정하듯이, 이 평화는 예수 자신이다. 이 본문에 접근할 때 이것을 명심해야 한다.

성경의 맥락 안에서 본문 읽기

이 본문에는 예수의 고별 설교 첫 부분과 재림 약속이 포함되어 있다. 26절은 예수에 대한 생생한 기억이 신앙 공동체 안에서 지속될 것이라는 보증으로 보혜사 성령이 영원히 함께하실 것임을 단언한다(요 14:26). 고별 설교는 슬퍼해야 할 이유가 되지 못한다. 예수의 죽음은 예수께서 사명을 완수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아울러, 고별 설교는 제자들이 곧 있을 극적인 사건들을 받아들이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방법이기도 하다. 고별 설교는 또한 평화의 선물을 주시는 말씀이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27절). 예수의 떠남은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이 다시 하나가 되는 것이다. 이 본문은 삼위일체 교리를 새롭게 보여준다.

이 세상 임금은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유발하여 언제든지 메시아의 현존을 일시적으로 가로막을 수 있다. 이 세상 임금의 권세는 예수의 권세와는 완전히 다르다(“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다”). 두려움 없는 삶은 메시아의 현존에 대한 신뢰에서 비롯되는 선물이다.

“이 세상 임금”이라는 표현은 다양하게 해석된다. 많은 주석가는 이것이 “거짓의 아비”(요 8:44)인 마귀라고 본다. 마귀는 어둠의 권세(요 13:2)이며 가롯 유다의 마음에 들어갔다. 다른 주석가들은 이 표현을 로마제국의 권세라고 본다. 사실, “임금”(archon)이라는 단어는 카이사르의 칭호 중 하나이며 그는 자신을 이 세계의 통치자로 선포했다. 예수께서 본디오 빌라도와의 대화를 통해 로마제국의 권력과 대면했을 때, 그는 빌라도의 왕국과 달리 자신의 왕국은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며 무력으로

이루지지도 않는다고 말한다.(요 18:36) 만일 예수의 왕국이 카이사르의 왕국과 같았다면 그 역시 무력을 사용했을 것이다. 이 두 가지 해석은 상당히 비슷하다. 많은 사람들이 로마제국주의가 사탄의 권세를 나타낸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 성경공부의 핵심 단어는 평화이다(히브리어: 샬롬[shalom], 헬라어: 에이레네[eirene]). 샬롬은 성경의 전통에서 풍성한 의미를 지닌 용어이다. 이 히브리어 단어의 복잡한 의미는 단 하나의 번역어로 나타낼 수 없다. 헬라어 번역(70인역)은 보통 샬롬을 eirene로 번역한다. 그러나 문맥에 따라서 70인역은 샬롬을 다양한 단어로 번역한다. 가령, soteria(구원, 창 26:31과 특히 샬롬이 희생 제사를 표현할 경우), eleos(자비, 창 43:23과 다른 여러 곳), hygiano(건강한, 출 4:18, 시 25:6)로 번역한다.

샬롬은 친구들이 매일 서로 만날 때마다 격의 없이 하는 인사말로 사용된다. 이 단어는 손님을 맞을 때나 방문객이 도착을 알릴 때 우정을 표현하는 말로 사용된다. 또한 죽음을 샬롬으로 간주하기도 한다.(창 15:15) 그러나 하나님의 심오한 샬롬은 죽음이 아니라 생명에 관한 것이다. 그것은 삶의 가장 좋은 것에 대한 기쁨을 나타낸다. 히브리어 텍스트에서 평화라는 단어를 나타내는 이미지는 평정과 고유의 상태를 훨씬 뛰어넘는다. 샬롬은 충만, 행복, 번영, 축복받은 삶(시 128편, 그 당시의 가부장적인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등 다양한 의미를 나타낸다. 시편 128편을 요약하는 마지막 구절은 샬롬을 기원한다(“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 지로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불의가 만연할 때는 평화가 이루어질 수 없다. 정의 없이는 평화도 없다. 하나가 이루어지려면 다른 하나가 필요하다(시 85:10). 평화와 정의는 하나님께 신실한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선물이다. 평화와 정의는 하나님의 뜻을 가장 높게 표현한 것으로 선포된다(시 72:3). 평화는 메시아가 약속하신 내용 중 하나이다(사 9:7).

시편과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저지르는 불의를 고발한다. 특히 힘 있는 자들이 판결을 굽게 하고 정의를 왜곡하여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것을 책망한다. 자신의 범죄를 숨기기 위해 거짓 평화를 선포하는 사람들을 맹렬히 비난한다(시 28:3).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의 임박한 파괴를 알릴 때 동일한 내용을 선포한다(렘 6:14). 성경에는 이와 비슷한 구절이 많으며 이것들은 오늘날에도 타당하다.

이스라엘 전통에서 축복과 평화는 떼어 수 없는 관계이다. 유력한 사람들이 힘이 없는 사람을 학대하거나 연약한 사람들이 그들의 소유를 빼앗길 때 평화는 없다. 선지자들과 시인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샬롬이 고요한 정지상태가 아니라 그와 반대로 에너지, 창조의 거룩한 목적을 위한 행동, 생명을 유지하는 힘이 필요하다는 점을 반복적으로 일깨워준다. 하나님은 평화(행복, 축복)를 만드시고 신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적극적인 증인으로 헌신한다.

서구의 언어에서 평화라는 단어에 함축된 의미는 똑같지 않다. 성경 외의 다른 텍스트에는 평화(eirene)는 전쟁이 없는 시기, 곧 갈등이 없는 상태를 나타낸다. 개인, 파벌, 민족들 사이에 화합이 이루어져 서로 공격하지 않고 안정적인 관계가 유지되는 상태를 말한다. 달리 말하면, 평화는 갈등 없이 살 수 있는 비교적 고요한 상태를 나타내는 덕목이다. 고대의 기독교적 헬라이어 텍스트에서는 평화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 그 의미를 완전하게 드러내기 위해서 “평화와 번영”, “평화와 안보”, “평화와 영광”같이 다른 단어를 덧붙였다.

예수 시대에 평화는 제국주의적 선전 용어의 일부였다. 팍스 아우구스타(Pax Augusta)는 로마제국의 통치를 정당화했다. 로마제국의 이런 모토는 팍스 로마나(Pax romana), 로마제국이 다른 민족에게 제공한 선물(강요된 선물)로 대체되었다. 이런 평화는 팍스 데오룸(Pax deorum), 곧 로마군단에 승리의 영광을 축복으로 주시고자 하는 신들의 승인으로 간

주되었다.

이러한 로마제국의 평화의 이상은 로마제국을 계승한 제국들에 의해 오늘날까지 그대로 이어졌고, “평화를 원한다면 전쟁을 대비하라”(vis pacem, para bellum)라는 격언으로 대변된다. 이것은 권력자들과 정복자들이 자신의 끊임없는 전쟁을 정당화하는 방식이다. 로마 역사가 타키투스(1-2세기)에 따르면, 브리튼의 추장 칼가쿠스가 전쟁에서 패배하기 전에 행한 연설에서 로마인들은 “고독한 상태를 만들어놓고 그것을 평화라고 부른다.”라며 파괴적인 평화를 비난했다.(타키투스, 『아그리콜라의 삶』[*Life of Agricola*, 29-32]) 세계 통치자가 제공하는 “평화와 안보”는 실제로는 폭력과 두려움을 유발한다. 또한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에서 이것을 분명하게 밝힌다(5:3-5).

예수께서는 그가 주는 평화와 세상의 평화, 곧 “이 세상 임금”이 주는 평화가 다르다는 점을 알려주신다. 후자는 폭력에 기초하기 때문에 진정한 평화가 아니다. 폭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죽인다. 반대로, 예수의 평화는 우월함, 힘에 의한 억압, 전쟁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는 자신을 모든 사람을 위한 풍성한 생명, 사랑이 가득한 평등과 함께 누리는 자유로 제시한다. 예수의 평화는 단순히 개인적인 덕목이 아니라 인간의 삶의 의미와 목적을 이해하는 방법이다. 그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이 평화를 통해 군대에 의해 강요된 평화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 이 평화는 성부 하나님과 형제자매와의 일치 속에서 이루어지며 모든 사람이 그렇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있다. 예수 자신도 바로 이 방법을 통해서 평화를 만든다. 그는 성부 하나님이 그에게 명령하신 일을 한다.

부활하신 예수는 제자들과 만날 때 정확히 샅롬이라고 인사를 하신다. 이러한 평화의 선포는 세 가지 행동을 통해 성취된다. 곧 하나님의 선물로서의 생명이 모든 민족에게 선포되고(“내가 너희를 보낸다”), 창조세계를 다시 살리는 성령의 임재(“성령을 받으라”), 인간관계를 회복하는 용

서(“만일 너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면, 너희도 용서받을 것이다”)가 그것이다.

바울은 예수의 메시아 사상의 의미를 해석하면서 하나님 나라가 평화의 열매를 더 풍성하게 한다는 결론을 내린다. 이런 생각은 에베소서에서 더 심오하게 표현된다(2:14-17). 그럼에도, 인간(대부분의 그리스도인을 포함하여)은 경계선을 나누고 강화하는 것이 평화를 보장하는 길이라고 계속 생각한다. 사람들은 예수께서 제시하는 평화의 길은 제쳐두고 이 세상이 주는 평화를 더 얻고자 한다.

본문의 마지막 구절은 행동하라는 요청이다.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평화는 단순히 위로를 주는 멋진 답론이 아니다. 우리는 평화의 증인으로 역할을 감당하고 평화의 과제를 수행해야 한다.

현재 상황 속에서 본문 읽기

이 본문은 또한 내적이고 개인적인 평화와 세상의 불안을 대조하는 것으로 해석되어 왔다. 거룩한 선물로서 평화의 개인적인 차원이 이 메시지의 내용이긴 하지만, 그것은 (사회적·정치적 평화를 포함하여) 메시아적인 평화의 다양한 차원을 통합하는 “세상의 평화”와는 다르다.

예수께서 자신의 평화와 세상의 평화가 다르다고 구분하신 것은 지난 시대에만 해당되는 말이 아니다. 군사적 우위를 통해 평화를 실현할 수 있다거나, (마치 “예방적” 전쟁은 전쟁이 아닌 것처럼) “선제” 공격에 의해 평화를 확보될 수 있다는 생각이 여전히 국제정치를 지배한다. 억지력이 정의와 평등을 위한 대화나 노력을 대신할 수 있다는 신념과, 점점 더 강하게 억압하는 방식은 오류임이 거듭 밝혀졌고, 결코 평화를 이룩하지 못했다. 그것은 오히려 또 다른 갈등을 유발한다. 그러나 세계의 제국들과 그들의 동맹국, 그리고 그들의 후계자들은 자신들의 오만 때문에 이런 방

식이 초래하는 비인간적인 결과를 보지 못한다.

식민지 정복 이전 미국 선주민들은 서로 인사할 때 평화를 기원했다. 과라니 부족은 무장하지 않은 양손을 보여주며 “사우이디”(sauidi)라고 말했다. 수(Sioux) 부족은 방문자들을 초대하여 평화의 담배를 피우게 했다. 두 부족의 이런 인사는 “평화”를 가져왔다고 주장하는 그리스도인 침략자들의 공격을 막지 못했다. 이런 사람들이 기독교적 평화의 메시지를 얼마나 신뢰할 수 있을까? 이와 비슷한 고통을 당한 다른 사람들은 어떨까? 기독교는 신앙의 핵심적인 확신을 부인한 역사를 갖고 있다. 우리는 역사를 무시하거나 마치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행동할 수 없다.

“하오 렌 평안”(好人平安)은 중국 문화권에서 자주 사용하는 인사말이다. 이 말의 문자적인 뜻은 “선한 분에게 평안이 있기를 빕니다.”이다. 이것은 선한 사람이 평화, 조화, 안녕 속에서 산다는 것을 나타낸다. 이 인사말은 고전적인 표현법으로 전통적인 서예에서는 이것을 예술적으로 표현하며, 흔히 중국인 집의 벽에 걸려 있다. 한국어에서 평화라는 사상은 공유와 평등과 친교의 의미와 관련된다. 따라서 문화에 따라 평화의 의미가 다양하게 표현된다.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지속적으로 사랑하시는 오늘날의 세계에서 물리적·상징적 폭력이 대물림되고 있다. 하나님의 평화나 정의와는 거리가 먼 탐욕과 교만이 더 강력해지고 있다. 따라서 평화를 향한 외침은 패배당한 사람들, 차별당하는 사람들, 폭력의 피해자들의 고통 속에서 찾아야 한다. 로마제국의 평화는 예수의 생명을 빼앗는다. 또한 예수의 많은 제자들과 수많은 무고한 사람들의 생명을 빼앗는다. 이런 일이 계속되고 있다. 새로운 제국들의 표어와 그들의 이데올로기적 정당성은 그들이 이루려고 하는 평화를 정확히 보여주지만, 실제적인 결과는 파괴와 전쟁이다.

카를로스 메스테르스(Carlos Mesters)는 복음을 “방어 능력이 없는 꽃”이라고 말한다. 이것은 세계 곳곳에서 가난과 차별을 유발하는 호전적

인 열강들의 위협에 직면한 평화를 생각할 때 떠오르는 이미지이다. 죽은 군인(그가 사람을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은 영웅이지만, 폭격당한 무고한 시민들은 “부수적인 손실”이다. 사실, 폭격당한 것은 바로 평화이다. 평화상이 전쟁을 지지한 사람들에게 수여될 때 선지자들의 말씀이 다시 낭독된다. 전쟁과 불의가 공포와 두려움을 갖게 하지만, 우리는 오늘날의 세계에서 하나님의 평화를 전하는 충성스러운 증인이 되라는 부름을 받고 있다.

성찰과 토론을 위한 질문

1. 어떻게 하면 일상생활과 신앙 공동체 생활에서 진정한 “그리스도의 평화”의 길을 찾을 수 있는가?
2. 세계적인 차원의 폭력은 지역 차원의 폭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3. 소비사회에서 불안이 증가한다. “그리스도의 평화”는 그에 대한 해답을 제공할 수 있는가?
4. 교회가 과거와 현재에 자행한 다양한(인종, 성[gender], 식민지) 폭력을 어떤 방식으로 회개할 수 있는가?
5. “평화는 방어 능력이 없는 꽃”이다. 하지만 꽃은 씨앗을 만든다. 평화의 씨앗을 아이들과 청소년들에게 뿌리는 방법은 무엇인가?

기도문

하나님, 우리에게 용기를 주셔서

세계의 거짓 평화를 고발하고

당신 앞에서 우리를 온전하게 만드는 평화를 선포하게 하소서.

생명의 하나님,

당신의 은혜로 우리를 평화의 증인으로 세워주시고
정의와 평화의 길로 이끄소서. 아멘.

저자 소개

네스토 O. 미게스(Néstor O. Míguez)는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 있는 Instituto Universitario ISEDET의 신학교수로 재직 중이다.